**004. TV 유치원 하나 둘 셋**

친구야 손 잡고 하나 둘 셋 / 엄마도 아빠도 하나 둘 셋 / 우리는 언제나 하나 둘 셋 / 정말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 풍선 타고 동동동 구름 타고 동동동 / 우리는 언제나 좋아요 / 정말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005. 가게놀이**

가게놀이 할 사람 모두모여라 / 가게놀이 할 사람 모두모여라 / 사과 한개 주세요 / 1000원입니다. / 귤 하나 주세요 / 그것도 1000원이죠 / 그럼 모두다 얼마입니까 / 1000원하고 또 1000원 2000원이죠

**006. 가위바위보(쎄쎄쎄)**

아침 바람 찬 바람에 / 울고 가는 저 기러기 / 우리 선생 계실 적에 / 엽서 한 장 써 주세요 / 한 장 말고 두 장이요 / 두 장 말고 세 장이요 / 구리구리 멍텅구리(빙글빙글 빙글빙글) / 가위 바위 보

**007. 강아지**

우리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 / 어머니가 빨래 가면 멍멍멍 / 쫄랑쫄랑 따라가며 멍멍멍 / 우리집 강아지는 예쁜 강아지 /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 꼬리치고 반갑다고 멍멍멍

**008. 개구리**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 개굴개굴 개구리 목청도 좋다

**009. 개구리**

엄마 개구리가 노래 부른다 / 꽥꽥 꽥꽥꽥꽥꽥 꽥꽥꽥꽥꽥 / 이야이야요 이야이야요 / 이야이야이야이야 이야이야요 / 아기 개구리가 노래 부른다 / 깩깩 깩깩깩깩깩 깩깩깩깩깩 / 이야이야요 이야이야요 / 이야이야이야이야 이야이야요 / 아빠 개구리도 노래 부른다 / 골골 골골골골골 골골골골골 / 이야이야요 이야이야요 / 이야이야이야이야 이야이야요

**010. 겨울나무**

나무야 나무야 겨울 나무야 /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011. 겨울바람**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 겨울 바람 때문에 (꽁꽁꽁) / 손이 꽁꽁꽁 (꽁) 발이 꽁꽁꽁 (꽁) / 겨울 바람 때문에 (꽁꽁꽁) / 어디서 이 바람은 시작됐는지 / 산 너머인지 바다 건넌지 / 너무 너무 얄미워

**012. 고기 잡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 이 병에 가득히 넣어 가지고서 / 라라라라 라라라라 온다나. / 선생님 모시고 가고 싶지마는 / 하는 수 있나요 우리만 가야지. / 하는 수 있나요 우리만 가야지. / 라라라라 라라라라 간다나. / 솨솨솨 쉬쉬쉬 고기를 몰아서 / 어여쁜 이 병에 가득히 차면은 / 선생님한테로 가지고 온다나. / 라라라라 라라라라 굿바이.

**013. 고드름**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 고드름 따다가 발을 엮어서 / 각시방 영창에 달아 놓아요

**014. 고향의 봄**

1.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 /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 2. 꽃동네 새 동네 나의 옛 고향 /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 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015. 곰 세 마리**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 아빠곰은 뚱뚱해 / 엄마곰은 날씬해 / 애기곰은 너무 귀여워 / 으쓱으쓱 잘한다

**016. 과꽃**

올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 누나는 과꽃을 좋아했지요 / 꽃이 피면 꽃밭에서 아주살았죠 / 과꽃 예쁜 꽃을 들여다 보면 / 꽃 속에 누나 얼굴 떠오릅니다 / 시집간 지 온 삼년 소식이 없는 / 누나가 가을이면 더 생각나요

**017. 과수원 길**

동구 밖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타고 솔솔 /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긋 /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에 과수원길 / 과수원길

**018. 귀여운 꼬마**

귀여운 꼬마가 닭장에 가서 / 암탉을 잡으려다 놓쳤다네 / 닭장 밖에 있던 배고픈 여우 / 옳거니 하면서 물고 갔다네 / 꼬꼬댁 암탉 소리를 쳤네 / 꼬꼬댁 암탉 소리를 쳤네 / 귀여운 꼬마가 그 꼴을 보고 /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다네

**019.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 눈도 감지 말고 웃지도 말고 /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020. 기차길옆**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소리 요란해도 / 아기 아기 잘도 잔다 / 기찻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큰다 /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소리 요란해도 / 옥수수는 잘도 큰다

**021. 기차를 타고**

1. 기차타고 신나게 달려가보자 / 높은 산도 지나고 넓은 들도 지나고 / 푸른산을 지날때엔 산새를 찾고 / 넓은 바다 지날때엔 물새와 놀고 / 설레임을 가득 안고 달려가보자 / 새로운 세상이 자꾸자꾸 보인다 / 2. 기차타고 신나게 달려가보자 / 높은 산도 지나고 넓은 들도 지나고 /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면 / 처음 만난 옆사람도 정다운 이웃 / 즐거움을 가득 안고 달려가보자 / 아름다운 세상이 자꾸자꾸 보인다

**022. 기찻길 옆**

기찻길 옆 오막살이 / 아기 아기 잘도 잔다 / 칙 폭 칙칙 폭폭 / 칙칙폭폭 칙칙폭폭 / 기차소리 요란해도 / 아기 아기 잘도 잔다

**023. 깊은 계곡, 깊은 계곡 광산 마을 동굴 집에**

늙은 아빠 어여쁜 딸이 사랑으로 살았네 / 오 내사랑 오 내사랑 나의 귀여운 클레멘타인 / 너는 영영 가버리고 나만 홀로 남았네 / 나만 슬피 남았네, 클레멘타인 / 매일 아침 9시 쯤 귀여운 오리들을 데리고 / 물가로 나가던 네 모습 / 너의 작은 발이 가지에 걸려 / 거품이는 수렁에 빠졌네 / 오 내사랑 오 내사랑 나의 귀여운 클레멘타인 / 너는 영영 가버리고 나만 홀로 남았네 / 나만 슬피 남았네, 클레멘타인

**024. 깡깡총체조**

손을 높이 손을 높이 / 쭉쭉쭉 쭉쭉 뻗어 봐요 / 발을 쿵쿵 발을 쿵쿵 / 쿵쿵쿵 쿵쿵 굴러 봐요 / 엉덩이를 실룩 실룩샐룩 / 이쪽 저쪽 실룩샐룩 / 뱅글뱅글 빙글빙글 / 깡깡총 깡총깡총 깡깡총

**025. 꼬까신**

개나리 노오란 꽃 그늘 아래 / 가지런히 놓여 있는 꼬까신 하나 / 아기는 살짝 신벗어 놓고 / 맨발로 한들 한들 나들이 갔나 / 가지런히 가다리는 꼬까신 하나

**026. 꼬마눈사람**

한겨울에 밀짚모자 꼬마 눈사람 / 눈썹이 우습구나 코도 비뚤고 / 거울을 보여줄까 꼬마 눈사람

**027. 꼬마자동차 붕붕**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 꼬마 자동차가 나왔다 /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 엄마 찾아 모험 찾아 / 나서는 세계 여행 / 우리도 함께 가지요 / 꼬마차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 꼬마차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 랄랄랄라 랄랄랄라 / 귀여운 꼬마차와 친구와 함께 / 어렵고 험한 길 헤쳐나간다 / 희망과 사랑을 심어주면서 / 아하 신나게 달린다 / 귀여운 꼬마 자동차 (붕붕!)

**028.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 꼬부랑 꼬부랑 넘어가고 있네 / 꼬부랑 꼬부랑 꼬부랑 꼬부랑 / 고개는 열두 고개 고개를 고개를 넘어간다

**029. 꼭꼭약속해**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 사이좋게 지내자 /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 꼭꼭 약속해

**030. 꽃밭에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 아빠가 매어놓은 새끼줄 따라 /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031. 꿀밤나무 밑에서**

커다란 꿀밤나무 밑에서 / 친구하고 나하고 / 정다웁게 얘기합시다 / 커다란 꿀밤나무 밑에서

**032. 꿀벌의 여행**

윙윙 거칠고 험한 산을 날아가지요 / 윙윙 머나먼 나라까지 꽃을 찾아서 / 윙윙 조그만 날개 고단하여 너무 지쳤지만 / 윙윙 쉬지 않고 날아가지요 / 윙윙 거칠고 험한 산을 날아가지요 / 윙윙 머나먼 나라까지 꽃을 찾아서 / 야!야!야!

**033. 나는 숲 속의 음악가**

나는 숲 속의 음악가 조그만 다람쥐 / 아주 익숙한 솜씨로 바이올린 켜지요 / 애애앵앵앵 애애앵앵앵 애애앵앵앵 / 애애앵앵앵 참 잘하지요

**034.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 밥상 위에 젓가락이 /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 댓돌 위에 신발들이 /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 짐수레의 바퀴들이 /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 학교길에 동무들이 /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035. 나리나리**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따다 물고요 / 병아리떼 쫑쫑쫑 봄나들이 갑니다

**036. 나무의 노래**

아침 햇살이 찾아들기 전 / 작은 소리로 노래하는 나무 / 아침 햇살이 찾아들면 / 가슴을 펴고 햇살을 흔들며 노래하는 나무 /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햇살이 눈부셔요 / 우리집 나무가 노래부르면 / 이웃집 나무가 대답을 하고 / 탐스런 나뭇잎만큼 가득 열린 참새들 / 열린 참새만큼 고운노래 들려주는 나무 / 하늘에 그려지는 오선지엔 햇살한줌 / 내 노래 한 가락

**037.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 이리 날아 오너라 / 노랑나비 흰 나비 / 춤을 추며 오너라 / 봄바람에 꽃잎도 / 방긋방긋 웃으며 / 참새도 짹짹짹 / 노래하며 춤춘다

**038. 나처럼 해봐요**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 아이 참 재미있네

**039. 내동생**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개 /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 /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몰라 몰라 /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개 / 잘먹고 건강하게 꿀돼지 / 착하고 복스럽게 두꺼비 / 용감하고 슬기롭게 왕자님 / 어떤게 진짜인지 몰라 몰라 몰라

**040.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 짜증나고 힘든일도 신나게 할 수 있는 / 꿈이 크고 고운 마음이자라는 따뜻한 말 / 넌 할수 있어 / 큰 꿈이 열리는 나무가 될래요 / 더 없이 소중한 꿈을 이룰 꺼에요 / 넌 할수 있어

**041. 네 잎 클로버**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 맑은 물 흐르는 작은 샘터에 / 예쁜 꽃들 사이에 살짝 숨겨진 / 이슬 먹고 피어난 네잎 클로버 랄랄라 / 한잎 랄랄라 두잎 랄랄라 / 세잎 랄랄라 네잎 /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 수줍은 얼굴의 미소 / 한줄기의 따스한 햇살 받으며 /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친구야 / 빛처럼 밝은 마음으로 / 너를 닮고 싶어

**042. 누구하고 노나**

꾀꼴꾀꼴 꾀꼬리 누구라고 노나 / 꾀꼴꾀꼴 꾀꼬리 꾀꼬리하고 놀지 / 개굴개굴 개구리 누구하고 노나 / 개굴개굴 개구리 개구리하고 놀지 / 방글방글 아기는 누구하고 노나 / 방글방글 아기는 엄마하고 놀지

**043. 눈**

펄펄 눈이 옵니다 / 바람 타고 눈이 옵니다 /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 송이송이 하얀 솜을 / 자꾸자꾸 뿌려줍니다 / 자꾸자꾸 뿌려줍니다

**044. 눈꽃송이**

송이송이 눈꽃송이 하얀꽃송이 /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꽃송이 / 나무에도 들판에도 동구밖에도 / 골고루 나부끼네 아름다워라

**045. 다람쥐**

산골짝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 도토리 점심가지고 소풍을 간다 / 다람쥐야 다람쥐야 재주나 한 번 넘으렴 / 파알딱 파알딱 팔딱 날도 참말 좋구나

**046. 달**

달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 어디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047. 달맞이**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 앵두 따다 실에 꿰어 목에다 걸고 / 검둥개야 너도 가자 냇가로 가자 / 비단 물결 남실남실 어깨춤 추고 / 머리 감은 수양버들 거문고 타면 / 달밤에 소금쟁이 맴을 돈단다 / 아가야 나오너라 냇가로 가자 / 달밤에 달각달각 나막신 신고 / 도랑물 쫄랑쫄랑 달맞이 가자

**048. 닭**

1. 귀여운 꼬마가 닭장에 가서 / 암탉을 잡으려다 놓쳤다네 / 닭장 밖에 있던 배고픈 여우 / 옳거니 하면서 물고갔다네 / 2. 꼬꼬댁 암탉 소리를 쳤네 / 꼬꼬댁 암탉 소리를 쳤네 / 귀여운 꼬마가 그 꼴을 보고 /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다네

**049. 당신은 누구시라고**

당신은 누구시라고 / 나는 (예쁜이) / 그 이름 아름답구나

**050. 도깨비 빤스**

도깨비 빤스는 튼튼해요 / 질기고도 튼튼해요 / 호랑이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 이천년 입어도 까딱없어요

**051.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 한 두-뿌리만 캐어도 / 대바구니 철-철철 다넘는다. / 에-헤요 에-헤요 에헤-요 / 에야라 난다. 지화자-좋다. / 얼씨구 좋구나 내사랑아

**052. 도레미 노래**

도는 하얀 도화지 / 레는 둥근 레코드 / 미는 파란 미나리 / 파는 예쁜 파랑새 / 솔은 작은 솔방울 / 라는 라디오고요 / 시는 졸졸 시냇물 / 다 함께 부르자 / 도레미파솔라시도 / 도시라솔파미레 / 도미미 미솔솔 / 레파파 라시시 / 도미미 미솔솔 / 레파파 라시시 / 솔도 라파 미도레 / 솔도 라시 도레도 / 도레미파솔라시도솔도

**053. 도레미송**

Doe, a deer a female deer / Ray, a drop of golden sun / Me, a name I call myself / Far, a long long way to go / Sew, a needle pulling thread / La, a note to follow so / Tea, a drink with jam and bread / That will bring us back to do.

**054. 돌과 물**

바윗돌 깨뜨려 돌덩이 / 돌덩이 깨뜨려 돌멩이 / 돌멩이 깨뜨려 자갈돌 /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 라라라라라 라라라 / 라라라라라 라라라 /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 /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 라라라라라 라라라 / 라라라라라 라라라

**055. 동네 한바퀴**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바퀴 / 우리 보고 나팔꽃 인사합니다 / 우리도 인사하며 동네 한바퀴 / 바둑이도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056. 동물농장**

1. .닭장 속에는 암탉이(꼬꼬댁) / 문간 옆에는 거위가 (꽥꽥) / 배나무 밑엔 염소가(음메)외양간에는 송아지(음매) / 오 히 야하 오 오오 오 히 야하 오 오 / 2. .깊은 산속엔 뻐꾸기(뻐꾹) / 높은 하늘엔 종달새 (호르르) / 부뚜막 위엔 고양이(야옹) / 마루 밑에는 강아지(멍멍)

**057. 둘이 살짝**

둘이 살짝 손 잡고 / 오른쪽으로 돌아요 / 둘이 살짝 손 잡고 / 왼쪽으로 돌아요 / 내 무릎 치고 네 어깨 치고 / 내 손뼉 치고 네 손뼉 치고 / 내 무릎 치고 네 어깨 치고 / 내 손뼉 치고 네 손뼉 치고 / 둘이 살짝 손 잡고 / 오른쪽으로 돌아요 / 둘이 살짝 손 잡고 / 왼쪽으로 돌아요

**058. 둥근해가 떴습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랫니 닦자 /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목 닦고 / 머리 빗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 유치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059.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 랄랄랄라 즐겁게 춤추자 / 링가링가 링가 링가링가링 / 링가링가 링가 링가링가링 / 손에 손을 잡고 모두 다함께 / 즐겁게 뛰어봅시다 /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 랄랄랄라 즐겁게 춤추자

**060. 등대지기**

얼어 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 한 겨울의 거센파도 모으는 작은 섬 /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을 /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 얼어 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 한 겨울의 거센파도 모으는 작은 섬 /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을 /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061. 똑같아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 젓가락 두짝이 똑같아요 / I wonder I wonder what are the same / Two chopsticks in a set. They are the same

**062. 루돌프 사슴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 만일 네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 그후론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길이 기억되리

**063.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 머리 어깨 무릎 입코 귀

**064. 머리어깨무릎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귀

**065. 모짜르트의 자장가**

잘 자라 우리아가 앞뜰과 뒷동산에 / 새들도 아가양도 다들 자고 있는데 / 달님은 영창으로 은구슬 금구슬을 / 보내는 이 한밤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거라 / 온 누리는 고요히 잠들고 / 선반의 생쥐도 다들 자고 있는데 / 뒷방서 들려오는 재미난 이야기만 / 정막을 깨뜨리네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거라

**066.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네 / 밀과 보리가 자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지요 / 농부가 씨를 뿌려 흙으로 덮은 후에 / 발로 밟고 손뼉치고 사방을 둘러 보네

**067. 바둑이 방울**

딸랑딸랑 딸랑 딸랑딸랑 딸랑 바둑이 방울 잘도 울린다 / 학교길에 마중 나와서 반갑다고 꼬리치며 딸라온다 / 딸랑딸랑 딸랑 딸랑딸랑 딸랑 바둑이 방울 잘도 울린다 / 딸랑딸랑 딸랑 딸랑딸랑 딸랑 바둑이 방울 잘도 울린다 / 대문 삐걱 열어주면은 제가 먼저 달음질쳐 들어온다 / 딸랑딸랑 딸랑 딸랑딸랑 딸랑 바둑이 방울 잘도 울린다

**069. 밖으로 나가 놀자**

밖으로 나가 놀자 시원한 바람 솔솔솔 / 밖으로 나가 놀자 해님은 방긋 / 그네뛰기 미끄럼은 재미나지요 / 숨바꼭질 말타기는 더 재미있죠 / 랄라랄라 랄라라 랄라라 랄라라 / 랄라랄라 랄라라 랄라 라라라라

**070.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071. 병원놀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 배 아프고 열이 나니 어떡할까요 / 어느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072. 봄**

엄마 엄마 이리 와 요것 보셔요 / 병아리떼 뿅뿅뿅뿅 놀고 간 뒤에 /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073. 봄나들이**

나리 나리 개나리 / 입에 따다 물고요 / 병아리 떼 쫑쫑쫑 / 봄나들이 갑니다

**074. 봄바람**

솔솔 부는 봄바람 쌓인 눈 녹이고 / 잔디밭엔 새싹이 파릇파릇 나고요 / 시냇물은 졸졸졸 노래하며 흐르네

**075. 부엉 부엉새가 우는밤**

부엉 부엉새가 우는밤 / 부엉 춥다고선 우는데 / 우리들은 할머니곁에 / 모두 옹기종이 앉아서 / 옛날 이야기를 듣지요.

**076. 비행기**

떴다 떴다 비행기 / 날아라 날아라 / 높이 높이 날아라 / 우리 비행기

**077. 뽀뽀뽀**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 헤어질 땐 또 만나요 뽀뽀뽀 / 우리는 귀염둥이 뽀뽀뽀 친구 / 뽀뽀뽀 뽀뽀뽀 뽀뽀뽀 친구

**078. 사과 같은 내 얼굴**

사과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구나 /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 오이같은 내 얼굴 길기도 하구나 / 눈도 길쭉 귀도 길쭉 코도 길쭉 길쭉 / 호박같은 내 얼굴 우습기도 하구나 / 눈도 둥글 귀도 둥글 입도 둥글 둥글

**079. 산 할아버지**

산 할아버지 구름모자 썼네 / 나비같이 훨훨 날아서 / 살금살금 다가가서 구름모자 벗겨오지 / 이놈하고 물벼락 내리시네 / 천둥처럼 고함을 치시네 / 너무 놀라 뒤로 자빠졌네 하하하하 웃으시네 / 웃음소리에 고개 들어 보니 / 구름모자 어디로 갔나요 / 바람 결에 날려갔나요 뒷 춤에 감추셨나요

**080. 산중호걸**

산중호걸이라 하는 / 호랑님의 생일날이 되어 / 각색 짐승 공원에 모여 / 무도회가 열렸네 / 토끼는 춤추고 / 여우는 바이올린 / 찐짠 찌가찌가 찐짠 / 찐짠찐짠 하더라 / 그 중에 한놈이 / 잘난 체하면서 / 까불 까불까불 까불 / 까불까불 하더라

**081. 산타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시네**

울면안돼 울면안돼 산타할아버지는 우는애들엔 / 선물을 안주신대요. / 산타할아버지는 알고계신대 누가 착한앤지 나쁜앤지 /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 잠잘때나 일어날 떄 짜증낼 때 장난할때도 / 산타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 울면안돼 울면안돼 산타할아버지는 우리마을을 / 오늘밤에 다녀가신대.

**082. 산토끼**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 산고개 고개를 나혼자 넘어서 / 토실토실 알밤을 주워 올테야

**083. 새신**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084. 새싹들이다**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넓고 높고 푸른하늘 / 가슴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 푸른꿈이 자란다 곱고 고운꿈 두리둥실 떠간다 / 구름이 되어 너른 벌판을 달려나가자 씩씩하게 나가자 / 어깨를 걸고 함께나가자 발맞춰 나가자 /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넓고 높고 푸른하늘 / 가슴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 햇님 되자 달님 되자 별님이 되자 / 너른세상 불을 밝힐 큰빛이 되자 / 무지개 빛깔 아름다운꿈 모두 우리 차지다 / 너와 나 함께 우리가 되어 힘차게 나가자

**085.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 사랑하는 우리 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086. 섬집아기**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087. 솜사탕**

나뭇가지에 실처럼 날아든 솜사탕 / 하얀 눈처럼 희고도 깨끗한 솜사탕 / 엄마 손 잡고 나들이 갈 때 먹어 본 솜사탕 / 훅훅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088. 송아지**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089. 숲 속 작은 집(숲 속 초막 집)**

숲 속 초막집(작은집) 창가에 / 작은 아이가 섰는데 / 토끼 한마리가 뛰어와 / 문 두드리며 하는 말 / 날 좀 살려주세요 / 날 좀 살려주세요 / 날 살려주지 않으면 / 포수가 빵 쏜대요 / 작은 토끼야 들어와 / 편히 쉬어라

**090. 숲 속을 걸어요**

2.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 숲속을 걸어요 꽃향기가 그윽한 길 / 햇님도 쉬었다 가는 길 다람쥐가 넘나드는 길 / 정다운 얼굴로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 2. 숲속을 걸어요 맑은 바람 솔바람이는 / 숲속을 걸어요 도랑물이 노래하는 길 / 달님도 쉬었다 가는 길 산노루가 넘나드는 길 / 웃음띤 얼굴로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091. 스와니강**

way down upon the swanee river. / Far far a way. / There's wha my heart is turning ever, / There's wha the old folks stay. / All up and down the whole creation sadly I roam, / Still longing for the old plantaton. / And for the old folks at home. / All the world are sad and dreary / Ev'ry were I roam. / Oh! darkeys how my heart grows weary. / Far from the old folks at home.

**092. 시계**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 언제나 같은 소리 똑딱똑딱 / 부지런히 일해요

**093. 시소**

시소 시소 / 올라가면 푸른 하늘 / 내려오면 꽃동산 / 재미나는 시소

**094.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어려서 / 부모님을 잃고요 / 계모와 언니들에게 / 놀림을 받았더래요 / 샤바샤바 아이 샤바 / 얼마나 울었을까 / 샤바샤바 아이 샤바 / 천구백팔십년대

**095.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에 사랑이 /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에 사랑이 /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에 사랑이 /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에 사랑이

**096. 아기공룡 둘리**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음 알 수 없는 둘리 둘리 / 빙하 타고 내려와 음 친구를 만났지만 / 일억년 전 옛날이 너무나 그리워 / 보고픈 엄마 찾아 모두 함께 나가자 아 아 / 외로운 둘리는 귀여운 아기 공룡 (호이! 호이!) / 둘리는 초능력 내 친구 / 외로운 둘리는 귀여운 아기 공룡 (호이! 호이!) / 둘리는 초능력 재주꾼

**097. 아기다람쥐 또미**

쪼로로롱 산새가 노래하는 숲 속에 / 예쁜 아기 다람쥐가 살고 있었어요 / 울창한 숲속 푸른 나무 위에서 / 아기 다람쥐 또미가 살고 있었어요 / 야호! 랄라 노래부르자 / 야호! 숲속의 아침을 / 야호! 트랄라 귀여운 아기 다람쥐또미

**098. 아기돼지**

토실토실 아기돼지 젖달라고 꿀꿀꿀 / 엄마돼지 오냐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 꿀꿀 꿀꿀 꿀꿀 꿀꿀 / 꿀꿀꿀꿀 꿀꿀꿀꿀 꿀꿀꿀꿀꿀 / 아기돼지 바깥으로 나가자고 꿀꿀꿀 / 엄마돼지 비가와서 안된다고 꿀꿀꿀

**099. 아기염소**

파란 하늘 파란 하늘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 해처럼 밝은 얼굴로 /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 잔뜩 찡그린 얼굴로 / 엄마 찾아 음매 아빠 찾아 음매 울상을 짓다가 / 해가 반짝 곱게 피어나면 너무나 기다렸나 봐 / 폴짝폴짝 콩콩콩 흔들흔들 콩콩콩 / 신나는 아기 염소들

**100. 아빠 힘내세요**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 얼른 문을 열었더니 /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 문 앞에 서 계셨죠 /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 아빠하고 불렀는데 /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 우울해 보이네요 / 무슨일이 생겼나요 / 무슨 걱정 있나요 / 마음대로 안되는 일 / 오늘 있었나요 /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101.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아빠는 엄마만 좋아하고 / 엄마는 언제나 호호호 / 그런데 어느날 내 동생이 / 엄마와 아빠를 놀렸네 / 아빠 엄마가 오늘 화가 나서 / 아빠 오시면은 말도 안 한대요 / 그래도 아빠는 허허허허 / 아니다 엄마는 안 그래 / 아빠는 엄마의 그림자고 / 엄마는 아빠의 그림자 / 랄라 우리 아빠 랄라 우리 엄마 /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낀대요 / 랄라 우리 아빠 랄라 우리 엄마 /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낀대요 / 랄라 우리 아빠 랄라 우리 엄마 /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낀대요

**102. 아빠와 크레파스**

어제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으음 / 그릴 것은 너무 많은데 하얀 종이가 너무 작아서 / 아빠 얼굴 그리고 나니 잠이들고 말았어요 으음 / 밤새 꿈나라에 아기 코끼리가 춤을 추었고 / 크레파스 병정들은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으음 / 어제밤엔 달빛도 아빠의 웃음처럼 / 나의 창에 기대어 포근히 날 재워줬어요 으음

**103. 아빠의 얼굴**

어젯밤 꿈 속에 나는 나는 날개 달고 /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 올라갔지요 /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104. 악어떼**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 떼가 나올라~ 악어떼

**105. 어린송아지**

어린 송아지가 큰 솥 위에 앉아 / 울고 있어요 / 엄마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106.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 기쁨의 그날 위해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진 않을 거예요 / 때로는 모진 시련에 좌절도 하겠지만 /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원 투 쓰리 포

**107. 얼룩송아지**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108. 엄마 돼지 아기 돼지**

토실토실 아기 돼지 젖 달라고 꿀꿀꿀 / 엄마 돼지 오냐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 꿀꿀 꿀꿀 꿀꿀 꿀꿀 / 꿀꿀꿀꿀 꿀꿀꿀꿀 꿀꿀꿀꿀꿀 / 아기 돼지 바깥으로 나가자고 꿀꿀꿀 / 엄마 돼지 비가 와서 안 된다고 꿀꿀꿀

**109.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아침 이슬에 젖어 / 귀여운 미소는 나를 반기어 주네 / 눈처럼 빛나는 순결은 우리들의 자랑 /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마음 속의 꽃이여 / Edelweiss, edelweiss / Every morning you greet me, / Small and white, / Clean and bright. / You look happy to meet me. / Blossom of snow may you bloom and grow, / Bloom and grow forever. / Edelweiss, edelweiss / Bless my homeland forever.

**110. 여름 냇가**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왓다갔다 / 버들가지 한들한들 꾀꼬리는 꾀꼴꾀꼴 / 금빛옷을 차려입고 여름아씨 박측왁측 / 곱게곱게 차려입고 시냇가에 뻐뜩왔다

**111. 여름냇가**

시냇물은 졸졸졸졸 / 고기들은 왔다 갔다 / 버들가진 한들한들 / 꾀꼬리는 꾀꼴꾀꼴

**112.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 잠잔다~ 잠꾸러기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 세수한다~ 멋쟁이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 옷입는다~ 예쁜이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 밥먹는다~ 무슨반찬~ 개구리 반찬 /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오란 꽃 그늘 아래 / 가지런히 놓여 있는 꼬까신 하나 / 아기는 살짝 신벗어 /

**113. 열 꼬마 인디언**

한 꼬마 두 꼬마 세꼬마 인디언 /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인디언 /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인디언 / 열 꼬마 인디언

**114. 예쁜 아기 곰**

동그란 눈에 까만 작은 코 / 하얀 털옷을 입은 예쁜 아기 곰 / 언제나 너를 바라보면서 작은 소망 얘기하지 / 너의 곁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 / 어떤 비밀이라도 말할 수 있어 / 까만 작은 코에 입을 맞추면 / 수줍어 얼굴을 붉히는 예쁜 아기 곰

**115. 오빠생각**

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 뻐꾹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제 / 우리오빠 말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 기럭기럭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슬피울던날 / 서울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무잎은 우수수 떨어집니다

**116. 옥수수 하모니카**

우리 아기 불고 노는 하모니카는 / 옥수수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 옥수수알 길게 두 줄 남겨 가지고 / 우리 아기 하모니카 불고 있어요 / 도레미파 솔라시도 소리가 안 나 / 도미솔도 도솔미도 말로 하지요 /

**117. 올챙이와 개구리**

개울가에 올챙이 한마리 / 꼬물꼬물 헤엄치다 /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 꼬물꼬물 꼬물꼬물 / 꼬물꼬물 올챙이가 /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118.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 달밤에 노루가 숨바꼭질 하다가 / 목 마르면 달려와 얼른 먹고 가지요

**120. 요기여기**

눈은 어디 있나 요기 / 코는 어디 있나 요기 / 귀는 어디 있나 요기 / 입은 어디 있을까 요기 / 엄마 눈은 어디 있나 여기 / 엄마 코는 어디 있나 여기 / 엄마 귀는 어디 있나 여기 / 입은 어디 있을까 여기

**121. 우리나라꽃**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 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 꽃 /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122. 우리집 강아지**

1. 우리집 강아지는 복슬강아지 / 어머니가 시장가면 멍멍멍 / 촐랑촐랑 따라가며 멍멍멍 / 2. 우리집 강아지는 예쁜강아지 / 학교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 꼬리치고 반갑다고 멍멍멍

**123. 우산**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 파란 우산 깜장 우산 찢어진 우산 / 좁다란 학교길에 우산 세 개가 / 이마를 마주 대고 걸어갑니다

**124. 울면 안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 산타 할아버지는 / 우는 애들엔 선물을 안 주신대요 /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 오늘밤에 다녀가신대 / 잠잘 때나 일어날 때 /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 산타 할아버지는 /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 오늘밤에 다녀가신대

**125. 이렇게 살아가래요**

1. 나비 등을 타고 꽃밭에 갔더니 / 내게 꽃처럼 살아가래요 / 산새 등을 타고 숲속에 갔더니 / 내게 산처럼 살아가래요 / 그윽한 향기 뿌리고 방긋이 웃음 지으면 / 무겁게 앉아 멀리 바라보고 푸르게 살아가래요 / 2. 물새 등을 타고 바다로 갔더니 / 내게 바다처럼 살아가래요 / 바람 등을 타고 하늘로 갔더니 / 내게 해처럼 살아가래요 / 가슴에 푸른물결치면서 진주를 키워가래요 / 온 세상 아름답게 밝혀주는 해처럼 살아가래요 / 랄랄랄랄랄~~~~

**126. 자장가(모차르트)**

잘 자라 우리 아가 / 앞뜰과 뒷동산에 / 새들도 아가 양도 / 다들 자는데 / 달님은 영창으로 / 은구슬 금구슬을 / 보내는 이 한밤 / 잘 자라 우리 아가 / 잘 자거라

**127. 자전거**

따르릉따르릉 비켜나셔요 /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 저기 가는 저 노인 조심하셔요 / 어물어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128. 작은 동물원**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 삐약삐약 병아리 음메음메 송아지 / 따당따당 사냥꾼 뒤뚱뒤뚱 물오리 / 푸~ 푸~ 개구리 집게집게집게 가재 / 푸르르르르르르 물풀 따당따땅따 소라~!

**129. 작은별**

반짝반짝 작은별 아름답게 비치네 / 동쪽하늘에서도 서쪽하늘에서도 / 반짝반짝 작은별 아름답게 비치네 / twinkle twinkle little star / how I wonder what you are / up above the world so high / like a diamond in the sky

**130. 잘자라 우리아가**

잘 자라 우리아가 앞뜰과 뒷동산에 / 새들도 아가양도 다들 자는데 / 달님은 영창으로 은구슬 금구슬을 / 보내는 이 한밤 /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거라 / 온 누리는 고요히 잠들고 / 선반의 생쥐도 다들 자고 있는데 / 뒷방서 들려오는 재미난 이야기만 / 적막을 깨뜨리네 /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거라

**131. 저금통**

땡그랑 한푼 땡그랑 두푼 / 벙어리 저금통이 아이구 무거워 / 하하하하 우리는 착한 어린이 / 아껴쓰며 저축하는 알뜰한 어린이

**132. 정글숲**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 악어떼가 나올라 (악어떼)

**133. 종달새의 하루**

1. 하늘에서 굽어보면 보리밭이 좋아 보여 / 종달새가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 비비배배 거리며 오르락 내리락 / 오르락 내리락 하다 하루해가 집니다. / 2. 밭에서 쳐다보면 저 하늘이 좋아보여 / 다시 또 쏜살같이 솟구칩니다. / 비비배배 거리며 오르락 내리락 / 오르락 내리락 하다 하루해가 집니다.

**134. 종이접기**

1. 색종이를 곱게 접어서 /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하고 / 알록달록 오색실 꼬리 달아 비행기를 만들자 / 솔솔 바람부는 뒷동산에 동네 친구 모두 모여서 / 파란 하늘 향해 날리면 새처럼 날아간다 / 하늘 끝까지 날아라 높이 더 높이 / 2. 도화지를 곱게 접어서 / 색연필로 예쁘게 색칠하고 / 노랑 파랑 은행잎 돛대 달아 종이배를 만들자 / 졸졸 노래하는 시냇가에 동네 친구 모두 모여서 / 파란 시냇물에 띄우면 물 따라 흘러간다 / 동해 바다까지 흘러라 멀리 더 멀리

**135. 주먹쥐고**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치고 주먹 쥐고 / 또 다시 펴서 손뼉 치고 두손을 머리 위에 / 해님이 반짝 해님이 반짝 해님이 반짝 반짝 거려요

**136.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 서는 날 오라 하여도 /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 내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 꽃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137. 징글벨**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부른다 /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138. 짝짜꿍**

엄마 앞에서 짝짜꿍 / 아빠 앞에서 짝짜꿍 / 엄마 한숨은 잠자고 / 아빠 주름살 펴져라

**139. 참 좋은 말**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 우리 식구 자고 나면 주고받는 말 / 사랑해요 이 한 마디 참 좋은 말 / 엄마 아빠 일터 갈 때 주고받는 말 /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신이 나지요 /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일 맛나지요 /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가슴이 / 콩닥콩닥 뛴데요 /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 나는 나는 이 한 마디가 정말 좋아요

**140. 코끼리**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 코끼리 아저씨는 소방수래요 불나면 빨리 와 모셔 가지요

**141. 코끼리아저씨**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 가랑잎 타고서 태평양 건너 갈 적에 / 고래 아가씨 코끼리 아저씨보고 / 첫눈에 반해 쓰리살짝 윙크했대요 / 당신은 육지 멋쟁이 나는 바다 이쁜이 / 천생연분 결혼합시다 (어머 어머 어머) / 예식장은 용궁 예식장 주례는 문어 박사 / 피아노는 오징어 예물은 조개 껍데기

**142. 클레멘타인**

깊은 계곡, 깊은 계곡 광산 마을 동굴 집에 / 늙은 아빠 어여쁜 딸이 사랑으로 살았네 / 오 내사랑 오 내사랑 나의 귀여운 클레멘타인 / 너는 영영 가버리고 나만 홀로 남았네 / 나만 슬피 남았네, 클레멘타인 / 매일 아침 9시 쯤 귀여운 오리들을 데리고 / 물가로 나가던 네 모습 / 너의 작은 발이 가지에 걸려 / 거품이는 수렁에 빠졌네 / 오 내사랑 오 내사랑 나의 귀여운 클레멘타인 / 너는 영영 가버리고 나만 홀로 남았네 / 나만 슬피 남았네, 클레멘타인

**143. 태극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144. 텔레비전**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145. 통통통통**

통통통통 털보 영감님 / 통통통통 혹부리 영감님 / 통통통통 코주부 영감님 / 통통통통 안경 영감님 / 통통통통 손을 위로 / 팔랑팔랑 팔랑팔랑 손을 무릎에 / 도도도도 무릎입니다 / 레레레레 배꼽입니다 / 미미미미 가슴입니다 / 파파파파 어깨랍니다 / 솔솔솔솔 머리랍니다 / 팔랑팔랑 팔랑팔랑 손을 무릎에

**146. 파란나라를 보았니**

파란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 파란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 파란나라를 보았니 맑은 강물이 흐르는 / 파란 나라를 보았니 울타리가 없는 나라 / 나 찌루찌루의 파랑새를 알아요 / 나 안데르센도 알고요 / 저 무지개 넘어 파란나라 있나요 / 저 파란하늘 끝에- 거기 있나요 / 동화책 속에 있고 텔레비젼에 있고 / 아빠의 꿈에 엄마의 눈속에 언제나 있는 나라 / 아무리 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어서 생각만 하는 나라 / 우리가 한번 해봐요 온세상 모두 손잡고 / 새파란 마음 한마음 새파란 나라 지어요 / 우리 손으로 지어요- 어린이 손에 주세요- 손!

**147. 파란마음하얀마음**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 여름엔 여름엔 파랄거예요 /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잎으로 파랗게 파랗게 덮인속에서 / 파아란 하늘보고 자라니까요 / 우리들 마음에 빛이있다면 / 겨울엔 겨울엔 하얄거예요 / 산도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하얗게 덮인속에서 /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148. 퐁당퐁당**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 건너 편에 앉아서 나물을 씻는 /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질여주어라

**149. 하얀나라**

나는 눈이 좋아서 / 꿈에 눈이 오나 봐 / 온 세상이 모두 하얀 나라였지 / 어젯밤 꿈 속에

**150. 학교종**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151. 함께 걸어 좋은 길**

문구점을 지나고 장난감집 지나서 / 학교가는 길 너랑 함께 가서 좋은 길 / 놀이터를 지나고 떡볶이집 지나서 / 집에 오는 길 너랑 함께 와서 좋은 길 /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손잡고 가는 길 / 너랑 함께 걸어서 너무 너무 좋은 길

**152. 해당화**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 나혼자 걷노라면 수평선 멀리 / 갈매기 한두쌍이 가물거리네 / 물결마저 잔잔한 바닷가에서 / 조개를 잡노라면 수평선멀리 / 파란 바닷물은 꽃무늬 지네 / 모래마저 금같은 바닷가에서

**153. 햇볕은 쨍쨍**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 모래알로 떡 해 놓고 / 조약돌로 소반 지어 / 언니 누나 모셔다가 / 맛있게도 냠냠

**154. 허수아비 아저씨**

하루종일 우뚝 서 있는 / 성난 허수아비 아저씨 / 짹짹짹짹짹 어이 무서워 / 새들이 달아납니다 / 하루종일 우뚝 서 있는 / 성난 허수아비 아저씨

**155. 혼자서도 잘할 거야**

거야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 예쁜 짓 고운 짓 혼자서도 잘할 거야 / 엄마는 잘한다고 호호호 호호호호 / 아빠는 귀엽다고 하하하하 하하하 / 거야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 예쁜 짓 고운 짓 혼자서도 잘할 거야

**156. 상어 가족**

아기 상어 (뚜 루루 뚜루) / 귀여운 (뚜 루루 뚜루) / 바닷속 (뚜 루루 뚜루) / 아기 상어 / 엄마 상어 (뚜 루루 뚜루) / 어여쁜 (뚜 루루 뚜루) / 바닷속 (뚜 루루 뚜루) / 엄마상어 / 아빠 상어 (뚜 루루 뚜루) / 힘이 센 (뚜 루루 뚜루) / 바닷속 (뚜 루루 뚜루) / 아빠상어 / 할머니 상어 (뚜 루루 뚜루) / 자상한 (뚜 루루 뚜루) / 바닷속 (뚜 루루 뚜루) / 할머니 상어 / 할아버지 상어 (뚜 루루 뚜루) / 멋있는 (뚜 루루 뚜루) / 바닷속 (뚜 루루 뚜루) / 할아버지 상어 / 우리는 (뚜 루루 뚜루) / 바다의 (뚜 루루 뚜루) / 사냥꾼 (뚜 루루 뚜루) / 상어가족

상어다 (뚜 루루 뚜루) / 도망쳐 (뚜 루루 뚜루) / 도망쳐 (뚜 루루 뚜루) / 숨자 으악 / 살았다 (뚜 루루 뚜루) / 살았다 (뚜 루루 뚜루) / 오늘도 (뚜 루루 뚜루) / 살았다 휴 / 신난다 (뚜 루루 뚜루) / 신난다 (뚜 루루 뚜루) / 춤을 춰 (뚜 루루 뚜루) / 노래 끝 오예

**157. 펭귄 댄스**

펭귄 차렷 / 펭귄 인사 / 펭귄과 함께 신나는 펭귄댄스 / 음악에 맞춰 귀엽게춤춰요 / 펭귄 차렷 / 펭귄 인사 / 오른손 / 펭귄과 함께 신나는 펭귄댄스 / 음악에 맞춰 귀엽게춤춰요 / 펭귄 차렷 / 펭귄 인사 / 오른손왼손 / 펭귄과 함께 신나는 펭귄댄스 / 음악에 맞춰 귀엽게춤춰요 / 펭귄 차렷 / 펭귄 인사 / 오른손 왼손 오른발 / 펭귄과 함께 신나는 펭귄댄스 / 음악에 맞춰 귀엽게춤춰요 / 펭귄 차렷 / 펭귄 인사 /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 펭귄과 함께 신나는 펭귄댄스 / 음악에 맞춰 귀엽게춤춰요 / 펭귄 차렷 / 펭귄 인사 /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고개 끄덕 / 펭귄과 함께 신나는 펭귄댄스 / 음악에 맞춰 귀엽게춤춰요 / 펭귄 차렷 / 펭귄 인사 /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 고개 끄덕 빙글돌아 / 펭귄과 함께 신나는 펭귄댄스 / 음악에 맞춰 귀엽게춤춰요 / 펭귄 차렷 / 펭귄 인사 / 끝

**158. 정글 붐붐**

붐 바디 붐붐! / 붐 바디 붐붐! / 붐 바디 붐파 붐! / 붐 바디 붐파 붐! / 정글에는 누가 누가 살까요? / 둥둥 고릴라가 살지요 / 둥가둥가 둥둥 / 둥가둥가 둥둥 / 고릴라가 둥가둥둥 / 붐 바디 붐붐 부기 우기 부! / 붐 바디 붐붐 부기 우기 부! / 붐 바디 붐붐 부기 우기 부! / 고릴라가 둥가둥둥 / 정글에는 누가 누가 살까요? / 슥슥 뱀이 살지요 / 날름날름 슥슥 / 날름날름 슥슥 / 뱀이 날름 스윽 슥슥! / 붐 바디 붐붐 부기 우기 부! / 붐 바디 붐붐 부기 우기 부! / 붐 바디 붐붐 부기 우기 부! / 뱀이 날름 스윽 슥슥! / 붐 바디 붐붐! / 붐 바디 붐붐! / 붐 바디 붐파 붐! / 붐 바디 붐파 붐! / 정글에는 누가 누가 살까요? / 쩍쩍 악어가 살지요 / 우걱우걱 쩍쩍 / 우걱우걱 쩍쩍 / 악어가 우걱우걱 / 붐 바디 붐붐 부기 우기 부! / 붐 바디 붐붐 부기 우기 부! / 붐 바디 붐붐 부기 우기 부! / 악어가 우걱우걱

**159. 동물의 왕 사자**

동물의 왕 나는 사자 / 용감하고 힘이 세 / 누구든 내가 나타나면 / 무서워 도망가네 / 동물의 왕 나는 사자 / 멋진 갈기를 뽐내 / 누구든 내 큰소리에 / 두려워 엎드리네 / 크아앙!

**160. 내 동물 친구**

보들보들 귀여운 내 친구 / 보들보들 사랑스런 내 친구 / 꼬리를 살랑살랑 / 흔들면서 인사해요 / 내 친구 멍멍이 / 노래를 짹짹짹짹 / 부르면서 인사해요 / 내 친구 짹짹이 /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 내 친구 멍멍이와 함께라면 /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 내 친구 짹짹이와 함께라면 / 조용히 야옹야옹 / 다가와서 인사해요 / 내 친구 야옹이 / 신나게 깡총깡총 / 뛰면서 인사해요 / 내 친구 깡총이 /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 내 친구 야옹이와 함께라면 /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 내 친구 깡총이와 함께라면 / 보들보들 귀여운 내 친구 / 보들보들 사랑스런 내 친구

**161. 바닷속에는**

넓고 넓은 바닷속 / 크고 작은 동물들 이야기 / 철썩 철썩 바닷속 / 동물 친구들과 놀아요 / 파란 바닷속엔 / 알록달록 집 있죠 / 파란 바닷속엔 / 멋진 친구들 있죠 / 말랑말랑 해파리 안녕 / 흐물흐물 문어도 안녕 / 뾰족 이빨 백상어와 / 해마까지 모두 사랑해 / 자 출발 / 넓고 넓은 바닷속 / 크고 작은 동물들 이야기 / 철썩 철썩 바닷속 / 동물 친구들과 놀아요 / 파란 바닷속엔 / 알록달록 집 있죠 / 파란 바닷속엔 / 멋진 친구들 있죠 / 어푸어푸 거북이 안녕 / 집게집게 꽃게도 안녕? / 따닥따닥 가리비와 / 불가사리 모두 반가워 / 넓고 넓은 바닷속 / 크고 작은 동물들 이야기

**162. 동물 소리**

출발 / 농장 오리는 / 꽥 꽥 꽥 / 당나귀는 / 히히힝 / 젖소는 / 음매 음매 / 출발 / 정글 속 뱀이 / 슥 슥 슥 / 앵무새는 / 꾸억 꾸억 / 호랑이가 / 어흥 어흥 / 한밤 중 부엉이가 / 부엉 부엉 / 들고양이는 / 야옹 야옹 / 저 멀리 늑대가 / 우 우

**163. 동물 결혼식**

결혼해주오 / 예쁜 공작새 아가씨 / 나와 결혼해주오 / 알록달록 무지갯빛 내 꼬리 / 멋지지 않나요? / 랄랄랄랄라 / 어머 정말 멋져요 / 얌전한 사슴 아가씨 / 나와 결혼해주오 / 뾰족뾰족 커다란 내 뿔 / 멋지지 않나요? / 랄랄랄랄라 / 엄청 멋져요 / 어여쁜 사자 아가씨 / 나와 결혼해주오 / 살랑살랑 흩날리는 내 갈기 / 멋지지 않나요? / 랄랄랄랄라 / 정말 멋져요

**164. 밤이 좋아**

나는야 부엉이 밤의 파수꾼 / “밤에 자지 않아” / 거꾸로 보는 걸 좋아해 / “따라 할 수 있니?” / 달빛 아래 모든 걸 본다네 / “정말 멋진 세상이야 / 자 순찰을 나가볼까?” / 나는야 너구리 밤의 떠돌이 / “다들 가면을 쓴 줄 알지” / 보이는 건 무엇이든 먹어 치워 / “와구와구 냠냠” / 캄캄한 나무 안이 제일 좋아 /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 / 나는야 늑대 밤의 사냥꾼 / “개와 비슷하다고?” / 덩치 큰 동물도 무섭지 않아 / “오 저기 먹잇감이다” / 이제는 사냥을 할 시간 / “자 사냥을 가자”

**165. 아기 동물들**

헤이 헤이 호 이삐 헤이 / 헤이 헤이 호 이삐 헤이 / 헤이 헤이 호 이삐 헤이 / 아기 동물들 / 아기 강아지는 / 퍼피라 하지요 / P-U-P-P-Y / P-U-P-P-Y / P-U-P-P-Y / 강아지는 퍼피 / 아기 고양이는 / 키튼이라 하지요 / K-I-T-T-E-N / K-I-T-T-E-N / K-I-T-T-E-N / 아기 고양이 키튼 / 헤이 헤이 호 이삐 헤이 / 헤이 헤이 호 이삐 헤이 / 헤이 헤이 호 이삐 헤이 / 아기 동물들 / 아기 토끼는 / 버니라 하지요 / B-U-N-N-Y / B-U-N-N-Y / B-U-N-N-Y / 아기 토끼 버니 / 삐약 병아리는 / 칙이라 하지요 / C-H-I-C-K / C-H-I-C-K / C-H-I-C-K / 병아리는 칙

언제나 헤엄만 치는 고기들의 꿈은 무얼까

새들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도 싶을 거야

푸른 바닷물 박차고 힘차게 날아 올라

가슴지느러미 활~짝 펴고 날아다니는

무지개빛 고운 날치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우리는 할 수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날치가 공중을 날듯 마음만 굳게 먹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 세상 무슨 일이든 뭐든지 할 수 있어

날마다 하늘을 나는 뭇새들의 꿈은 무얼까

고기처럼 바다를 헤엄쳐보고도 싶을 거야

푸른 바닷물속 깊숙히 힘차게 자맥질해

멋진 날개를 노처럼 저어 헤엄쳐대는

차가운 남극해 펭귄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우리는 할 수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펭귄이 자맥질 하듯 마음만 굳게 먹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 세상 어떤 일이든 뭐든지 할 수 있어

풀각시 만들어 금비녀 꽂아 줄까

연지곤지 찍어 족두리 얹어 줄까

아침 이슬 밟은 꽃신을 신겨 줄까

착하고 어여쁜 하늘빛 소녀야

가을에 손끝에 들꽃향기 묻혀줄까

봉숭아 짓이겨 입술에 발라 줄까

겨울 눈꽃으론 천사 옷 입혀줄까

착하고 어여쁜 하늘빛 소녀야

1.저 멀리 월명산에 솟아 오른 아침 햇살이

새만금 해변따라 신시도에 달려 와서는

너울 너울 너울따라 월영봉에 올라가지요

아-- 여기가 우리의 땅 새만금인가

그래 그래 여기가 세계속의 새만금도시

오오 오오 힘차게 세계속의 새만금 도시

2.동쪽하늘 모악산에 뻗어내린 빛난 햇살이

산길따라 들길따라 가력도에 찾아와서는

씽씽쌩쌩 노래하며 아스팔트 달려가지요.

아-- 여기가 우리의 땅 새만금인가

그래 그래 여기가 세계속의 새만금도시

오오 오오 힘차게 세계속의 새만금 도시

네가 정말 좋아 (파랑새동요 제22집)

1. 친구야 난- 네가 정말 좋아 저 들판의 꽃-처럼

저 하늘 나는 새처럼 난 네가 정말 좋아

내가 너에게 햇살로 다가와 내가 너에게 바람으로 다가와

꽃이 된다면 향기가 된다면 나의 하루가 보람차고 행복할거야

나의 생활이 꿈-으로 가득 찰거야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 날거야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 나의 친구야

2. 친구야 난- 네가 정말 좋아 저 들판의 나무처럼

저 푸른 바다 새처럼 난 네가 정말 좋아

내가 너에게 꿈으로 다가와 내가 너에게 희망으로 다가와

별이 된다면 사랑이 된다면 나의 하루가 건강하고 즐거울거야

나의 생활이 희망으로 가득 찰거야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 날거야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 나의 친구야

오늘 아침 학교 시간 너무 늦어서 살금살금 교실로 들어갔는데

안녕하며 반기시는 우리 선생님 나의 손 잡아주셨네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포근한 미소에

웬일인지 기분좋아 하루종일 내마음 설레었지

온세상 아름답게 그리라고 무지개꿈 심어주시는 선생님

깊은뜻 향기롭게 가꾸어 눈부신 꽃으로 피어날래요

무더운 여름날 초록 풀밭에

자그마한 민들레 씨앗 하나

얄미운 바람 한줄기에

씨앗이 모두 흩어져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무지개 다리 건너서

시원한 바람 타고

날아가는 민들레 씨앗

고마운 바람 살짝 타고서

신나는 여행 떠나요 야호!

저 하늘 높이 훨훨 날아갔어요

무지개 다리 건너서

귀를 기울여 봐요 친구의 이야기에

왜 화를 내고 슬퍼하고 기뻐하는지

친구의 마음을 들어 봐요

얘기를 해 봐요 가슴을 활짝 열고

마음의 벽 모두 다 헐어 버리고

친구에게 마음을 얘기해 봐요

친구의 마음 소릴 들어 보아야

친구의 마음속을 알 수 있어요

친구의 마음속을 살펴보아야

친구 마음 볼 수 있어요

친구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친구의 마음으로 들어가 봐요

친구의 마음속을 여행하면서

친구와 깊은 사랑 함께 나눠요

친구의 마음속에 함께 살면서

친구와 밝은 세상 함께 나눠요

세계 기네스북에는 세상 온갖 일 올라있어요

세계기네스북에는 신기하고 재밌는 일도 많아요

눈썹이 가장 긴 아저씨도

가장 길게 판소리를 부르 애도

신나는 꼭지점 댄스도

모두가 최고로 올라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올리지 못한

이 세상엔 소중한 일도 많아요

이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

청소를 잘하는 사람

이웃 위해 제일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매일매일 착한 일 많이 하고

친구에게 우정을 나눠주어

세상에 최고로 착한 사람

반드시 내 이름 올릴래요

사랑이 가득한 좋은 세상

행복이 넘치는 좋은 세상

모두가 즐겁게 사는 세상

반드시 만들고 싶어요 반드시 만들고 싶어요

1. 저녁 바다 저 멀리 수평선 저멀리

내가 띄운 조각배 어딜 가나요

수평선 먼 바다로 떠나 가는 배

아물아물 그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저녁바다 저 멀리 수평선 저멀리

내가 띄운 조각배 어딜 가나요

2. 밤 바다 파도 넘어 수평선 넘어

내가 띄운 조각배 언제 오나요

수평선 먼 바다로 떠난 조각 배

밤 하늘에 둥실 두우웅실 조각달 떠와요

밤 바다 파도 넘어 수평선 넘어

내가 띄운 조각배 언제 오나요

커다란 바위 속에 작은 고래 한마리

엄마고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어요

살금살금 다가가서 간질간질 잠깨우면

푸른 바다로 신나게 달려올 것 같아요

바다가 푸르른 날에 휘파람을 불어 보아요

바위 속의 아기고래 헤엄쳐 올 때까지

푸우푸우 숨을 쉬면서 울산바다로

푸우푸우 물을 뿜으며 푸른 바다로

바다가 푸르른 날에 휘파람을 불어 보아요

바위 속의 아기 고래 헤엄쳐 올 때까지

내가 나무라면 하늘 저 높이까지

쑥 쑥 크고 싶다네

저 하늘에 누가 누가 살기에

비도 뿌리고 햇살도 뿌리는지 궁금하거든

내가 내가 나무라면

수 없이 많은 가지 뻗고 싶다네

집 없는 새들이 모두 모여

오순 도순 살아가라고

내가 나무라면 저 하늘 높이까지

쑥 쑥 크고 싶다네

1. 춤을 추세 춤을 추세 흥겹게 춤을 추세

우리 얼이 듬뿍 담긴 우리네 춤을 추세

사뿐사뿐 걸어보고 껑충 뛰어도 보고

손을 위로 활짝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고

얼사좋네 절사좋네 어깨 춤이 절로난다

덩실 덩실 춤을 추세 흥겨운 우리네 춤

손에 손을 마주 잡고 빙빙 돌아가며

고운 사랑 나누면서 깡총 뛰어도 보세

얼사좋네 춤을 추세 신바람이 절로 난다

치맛자락 휘날리며 강강술래 추어보세

춤을 추세 춤을 추세 흥겹게 춤을 추세

우리 얼이 듬뿍 담긴 우리네 춤을 추세

2. 춤을 추세 춤을 추세 흥겹게 춤을 추세

우리 얼이 듬뿍 담긴 우리네 춤을 추세

성큼성큼 걸어보고 고개를 숙였다 들고

까치걸음 게걸음에 신바람 절로 난다

얼사좋네 절사좋네 어깨 춤이 절로난다

덩실 덩실 춤을 추세 흥겨운 우리네 춤

양반탈 할미탈 각시탈 초랭이탈

여러가지 탈을 쓰고 펄쩍 뛰어도 보세

얼사좋네 춤을 추세 신바람이 절로 난다

한삼자락 휘날리며 탈춤을 추어보세

춤을 추세 춤을 추세 흥겹게 춤을 추세

우리 얼이 듬뿍 담긴 우리네 춤을 추세

넘실넘실 하늘에 하얀 낮달이 펄럭인다

흰 눈이 소복쌓인 언덕에 올라서서

언 손을 모아 소리를 모아 발을 동동 구르면

어느새 익어간다 땡감 빛 보조개들

연자새가 풀어내는 가는 연줄이 춤을 춘다

즐거운 마음들을 풍선처럼 매달고

새가되어 높이높이 구름위로 날으면

아이들 마음도 줄을 타고 오른다.

연줄을 힘차게 또르르 풀면

언 손은 스르르 눈 녹듯이 녹고

꼬빡꼬빡 꼬빡연 꼭지붙은 꼭지연

마을 위에 동동 언덕 위에 동동

즐거운 연날리기

사람들은 모두 모두 착하고 착한 아이되어

연을 띄운다 사랑을 띄운다

기쁨이 넘쳐난다

1. 나는 나는 멋쟁이 시인이 되고 싶어요

자연의 아름다움 꼭 닮은 시인이 되고 싶어요

하늘과 땅 나무와 돌

아름다운 꽃들과 맑은 시냇물

빨주노초파남보 고운무지개

깨끗하고 착한 친구의 마음

고운 마음 그대로 예쁜 글로 나타내는

자연을 닮은 멋쟁이 시인이 되고 싶어요

2. 나는 나는 멋쟁이 소설가가 되고 싶어요

자연의 아름다움 꼭 닮은 소설가가 되고 싶어요

바른 마음 바른 생각

새로움을 찾는 맑은 눈으로

동물 이야기 식물 이야기

정이 듬뿍 담긴 이웃 이야기

좋은 느낌 그대로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아름답고 진실한 멋쟁이 소설가가 되고 싶어요

오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동방의 예의지국 백의민족 대한민국

치고 달고 맺고 풀며 흔들고 밀고 꺾는

여유롭고 신명나는 우리의 멋 우리 가락

영산화상 수재천 삼현 육각의 예술음악

시나위 합주 산조음악 삶이 담긴 민요창

서편제 동편제 이야기 노래 판소리

시조 가곡 잡가 단가 구음 살풀이 비나리

신명나는 사물놀이 우리정서 우리 가락

우리가 슬기롭게 가꾸고 사랑하세

1. 내 탓이야 내탓이야 잘되고 못되는 건 내탓이야

내 탓이야 내탓이야 따지고 보면은 내탓이야

친구들과 다툰 것도 따돌림을 당한 것도

이 친구 저 친구 탓으로 돌리며

이 핑게 저 핑게 둘러 대지만

그건아냐 그건아냐 그것은 모두가 내 탓이야

그건아냐 그건아냐 따지고 보면은 내 탓이야

2. 내 탓이야 내탓이야 잘되고 못되는 건 내탓이야

내 탓이야 내탓이야 따지고 보면은 내탓이야

시험 성적 나쁜 것도 무엇이든 안되면은

머리가 나쁘다 소질이 없다며

이 핑게 저 핑게 둘러 대지만

그건아냐 그건아냐 그것은 모두가 내 탓이야

그건아냐 그건아냐 따지고 보면은 내 탓이야

1. 배를 띄우자 배 띄우자 희망찬 내일 향해

돛을 올려라 높이높이 파란 하늘 닿도록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 힘차게 노를 젓자

어기여차 어어기여차

푸른 꿈 싣고서 즐겁게 가자

힘차게 노저어 노저어 가자

수평선 저넘어 노저어 가자

기쁨의 노래 싣고 희망찬 세계로 노 저어 가자

2. 배를 띄우자 배 띄우자 희망찬 내일 향해

돛을 올려라 높이높이 하얀 구름 닿도록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 힘차게 노를 젓자

어기여차 어어기여차

갯 내음 싣고서 즐겁게 가자

힘차게 노저어 노저어 가자

수평선 저넘어 노저어 가자

행복의 노래 싣고 희망찬 세계로 노저어 가자

노저어 가자

애들아 모여라 씨름판을 벌려보자

윗마을 아랫마을 흥겹게 놀아보자

아이들도 어른들도 함께하는 씨름판

농악놀이 장단 맞춰 씨름판이 춤을 춘다

청샅바 갑돌이 홍샅바 순돌이

들배지기 호미걸이 차돌리기 다리걸기

뒤집기 오금치기 기술도 가지가지

한가위에 열리는 즐거운 가을 잔치

온 동네가 축제의 날 즐거운 씨름 놀이

2. 애들아 모여라 씨름판을 벌려보자

윗마을 아랫마을 흥겹게 놀아보자

아이들도 어른들도 함께하는 씨름판

농악놀이 장단 맞춰 씨름판이 춤을 춘다

청샅바 차돌이 홍샅바 복돌이

띠씨름 샅바씨름 허리씨름 애기씨름

왼씨름 오른씨름 씨름도 가지가지

한가위에 열리는 즐거운 가을 잔치

온 동네가 축제의 날 즐거운 씨름 놀이

1절

푸른잎 더운바람 스쳐부는 사이로

풀벌레 나는 강변아침 아름다운 강변아침

이슬먹고 햇볕따라 하루종일 웃는 얼굴

해바라기 친-구 해바라기 친-구

2절

푸른잎 더운바람 스쳐부는 사이로

풀벌레 나는 강변아침 아름다운 강변아침

슬플때도 기쁠때도 하루종일 웃는 얼굴

해바라기 친-구 해바라기 친-구

1.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흥부놀부 이야기에

욕심없는 흥부네는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하나 선물받아 뒤뜰에 심었더니

지붕위에 복바가지 주렁 주렁 열렸대요

박을타니 쌀이 쏟아지고 금은 보화 가득 큰부자가 되었대

천복 받은 흥부네는 행복하게 살았대요

2.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흥부놀부 이야기에

욕심많은 놀부네는 제비다리 부러뜨려

박씨하나 얻어다기 뒤뜰에 심었더니

지붕위에 벌바가지 주렁 주렁 열렸대요

박을타니 도깨비가 나와 재산모두 잃고 가난뱅이 되었대

천벌 받은 놀부네는 땅을 치며 울었대요

난 알고 있어요 - 선생님의 깊은 사 - 랑

언제나 날 지켜 보-시는 선생님의 마 - 음을

나 추울 때 따스한 손으로 두 손 꼭 잡아 주 - 시며

나 슬플때 다정한 목소리로 위로해주시네 -

난 알고 있어요 - 선생님의 크신 사-랑

언제나 날 아껴 주-시는 선생님의 마 - 음을

외딴 섬마을 언덕위에 울타리도 없는 조그만 학-교

텅빈 뜰에 핀 해바라기 꽃위에 빨간 고추 잠자리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타-고 꽃잎에 날-아와 앉-아

따스한 햇살이 너무 포근해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뱃고동 소리 반가운 소식 가져왔다고

깜짝 놀라 꽃일 깨워 흔-들-며 포르르르 날아 오른다---

예-쁜 햇살 한줌이 동그마니 앉아 놀더니

그 자리에 노란 웃음이 생글생글 맺혔어요

어-느새 내게 다가와 활짝 웃는 민들레

네-노란 웃음을 보면 내마음도 예쁜 민들레

골골골 골넘이 마을에

줄줄줄줄 줄을 지어

어디로 갈까요

목욕을 간대요.

아침에는 남탕 남자만 오세요.

저녁에는 여탕 여자만 오세요.

할아버지는 손자랑 할머닌 손녀랑

쓱쓱 싹싹 때를 밀어요.

골골골 골넘이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동네 목욕탕

비단뫼 골넘이 목욕탕엔

사랑이 모락모락

잠잘 때는 예쁜 마음 열어 놓고 자요

달님이 놀러 와서 하늘나라 그림을 그리게요

동화나라 공주님도 하늘 나라 천사들도

숲속나라 요정들도 알록달록 색동바람도

푸른하늘 싱그런 잔디밭 우리 마음에

무지개 노래 부르며 사랑을 심고 가게요

잠잘 때는 예쁜 마음 열어 놓고 자요

별님이 놀러 와서 하늘나라 노래를 부르게요

별-나라 왕자님도 하늘 나라 친구들도

산속나라 동물들도 행복의집 엄마 아빠도

푸른들판 향기론 과일 밭 우리 마음에

무지개 향기 뿌리며 꿈을- 심고 가게요

예쁜 종이 꽃 접어 송이 송이 피우고

연둣빛 새잎 오려 사알짝 꽂았더니

소리가 들리네요 봄이 오는 소리가

향기가 퍼지네요 은은한 향기가

하얀 겨울 나무에 나의 봄이 왔나 봐요

겨우내 기다리던 새 봄이 왔나봐요

푸른 하늘의 하얀 구름이 어서 오라 우릴 부르고

너른 바다의 갈매기들이 어서 오라 우릴 부른다

하얀 꿈을 품고서 사이 좋게 살자고

고운 노래 부르며 정답게 살자고

푸른 하늘의 하얀 구름이 두리 둥실 꿈을 뿌리며

너른 바다의 갈매기들이 끼륵끼륵 노래 부른다

푸른 숲속의 푸른 요정이 어서 오라 우릴 부르고

너른 들판의 바람 새들이 어서 오라 우릴 부른다

푸른 꿈이 영그는 푸른 동산 꾸미고

여린 마음 내밀며 신바람 내자고

푸른 숲속의 푸른 요정이 둥실 둥실 춤을 추면서

너른 들판의 바람새들을 오솔길로 안내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금수강산

산도 물도 모두 아껴 길이길이 생명의 땅

옥토로 지켜가세 옥토로 지켜가세

싱글벙글 어린이들 몸도 맘도 튼튼 탄탄

당당한 후손으로 후손으로 길러가세

너도나도 주인의식 내가 먼저 모범되는

자랑스런 시민되세 시민이 되세

지구촌의 등대되어 온누리에 길잡이될

후손들도 자랑할 나라 자랑할 나라

여름 일기장

1절 : 여 름방학- 일 기장을- 살 짝 펼 치 면

너 울너울- 춤- 추며- 푸른파도 달- 려와 요

바 위틈에 참- 게 도 나를보고 인사 하 고

물새들도 정- 답 게 내 마음도 날- 아 와 요

여 름방학- 일 기장을- 살 짝 펼 치 면

너 울너울- 춤- 추며- 푸른파도 달- 려와 요

2절 : 여 름방학- 일 기장을- 살 짝 펼 치 면

시- 냇가- 미 루나무- 줄- 지어 걸어나와 요

매 미소리 맴- 맴 맴 온- 몸을 목욕하 고

원두막에 과일들도 달- 려와 내침말려 요

여 름방학- 일 기장을- 살 짝 펼 치 면

시- 냇가- 미 루나무- 줄- 지어 걸어나와 요

우리들도

1절 : 파란 하늘 그속 에서 뛰어노는구름 처 럼

파란 하늘 그속 에서 노래하는새들 처 럼

우 리 들 도 마음 열고 파란하늘바 라 보 며

구 름 처 럼 뛰어 놀자 새들처럼노래 하 자

2절 : 파란 하늘 그속 에서 세상여는해님 처 럼

파란 하늘 그속 에서 꿈을꾸는달님 처 럼

우 리 들 도 사랑 으로 푸른세상걸 어 가 며

해 님 처 럼 세상 열자 달님처럼꿈을 꾸 자

거울은 기쁨이 두배 <이호성 작사, 김남삼 작곡> (부분 2중창)

<1절>

빨강 노랑 하얀 국화 화분을 거울 앞에 놓았더니-

화분이- 여섯개 기쁨 기쁨이-두배-

엄마가 사주신 새옷을 입고 거울 앞에 나섰더니-

새옷이 예쁜옷이 한벌 두-벌 기쁨이 두--배

거울 앞에서 하하하하 호호호호 히히히히 웃음이 한-다발-

기쁨이 기쁨이 두-배 거울은 기쁨- 두배-

<2절>

빨강 노랑 하얀 국화 화분을 거울 앞에 놓았더니-

화분이- 여섯개 기쁨 기쁨이-두배-

엄마가 사주신 새옷을 입고 거울 앞에 나섰더니-

새옷이 예쁜옷이 한벌 두-벌 기쁨이 두--배

거울 앞에서 하하하하 호호호호 히히히히 웃음이 한-다발-

기쁨이 기쁨이 두-배 거울은 기쁨- 두배

아빠 자전거 뒷자리 (이정석 작사, 김남삼 작곡)

<1절> : 오늘처음 탄 아빠 자전거 뒷자리 만-큼

행복한 곳이 또있을까 아마 없을꺼야

아빠의 낮은 콧노래는 참 참 싱그러웠다

아빠가 흘린 땀냄새도 향기로웠다

씨잉씽 씨잉씽 신나게 달리는 아빠 자전거 뒤에서

꼬옥 잡고 가는 아빠 허리는 정말 따스했-었-다.

<2절> : 오늘처음 탄 아빠 자전거 뒷자리 만-큼

포근한 곳이 또있을까 아마 없을꺼야

아빠의 낮은 콧노래는 참 참 싱그러웠다

아빠가 흘린 땀냄새도 향기로웠다

씨잉씽 씨잉씽 신나게 달리는 아빠 자전거 뒷자리

꽃방석 같이- 포근했었다 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1. 어스름이 사방에 찾아올 때

하늘에는 달님이 얼굴 내밀고

그 때부터 날 부르는 소리

바닷가를 찾아 가슴 활짝 열면

달빛 물결 별무늬 박힌 꿈 동산

2. 이따금 물새 나르고 등대 불빛에

이야기 시작하면 파도 소리에

그 때부터 일지장 쓰는 소리

바닷가를 찾아 가슴 활짝 열면

달빛 물결 별무늬 박힌 꿈 동산

아빠 등 (김종영 작사 김남삼 작곡)

1절 : 산-처럼 우뚝선 뜀틀에 나는 개미가 되어

두근두근 다리가 후들후들 넘지-못-했어요

엄마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라고

아빠 등을 넘다 넘어지고 끝-내 넘었어요

선생님 신호에 뜀틀이 아빠 등 되어

달려가 흘쩍 넘어 박수 선물 받았어요

2절 : 집채처럼 버텨선 뜀틀에 나는 콩알이 되어

팔딱팔딱 다리가 후들후들 눈 앞이 깜깜했어요

엄마는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라고

아빠 등을 넘다 넘어지고 드디어 넘었어요

선생님 신호에 뜀틀이 아빠 등 되어

달려가 흘쩍 넘어 신바람에 춤췄어요

별 하나 (김원겸 작사, 김남삼 작곡)

1절 : 하늘 맑은 밤 밖에 나가 별-을- 헤노라면-

저-어-딘가에 지구 닮은 별 꼭 있을 것 같아-

그곳에도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꺼야-

어떤 아이가- 나처럼 밤하늘을 보고 있을 꺼-야-

저-넓은 우-주 수-많은 별들 중에 어느 별일까-

나 사는 곳-도 별 하나 너 사는 곳도 별 하나-

2절 : 하늘 맑은 밤 밖에 나가 별-을- 헤노라면-

저-어-딘가에 지구 닮은 별 꼭 있을 것 같아-

그곳에도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꺼야-

어떤 아이가- 나처럼 밤하늘을 보고 있을 꺼-야-

저-넓은 우-주 수-많은 별들 중에 어느 별일까-

나 사는 곳-도 별 하나 너 사는 곳도 별 하나-

야, 금강산이다 (이순덕 작사 김남삼 작곡)

<1절>: 수정같은 맑은 물 모여 쏴 쏴 쏴 폭포이루고

철따라 고운 옷을 입는다 알프스 산 보다 더 멋지다

일만 이천 봉우리 세다 깜빡 잊고 또 다시 센다

산이 푸르다 바위는 요술쟁이 산새 노래 손짓한다

야호 봄에는 금강-산 야호 여름엔 봉-래-산

골짜기 마다마다 탄성 터진다 야, 금강산이다.

<2절>: 수정같은 맑은 물 모여 쏴 쏴 쏴 폭포이루고

철따라 고운 옷을 입는다 알프스 산 보다 더 멋지다

일만 이천 봉우리 세다 깜빡 잊고 또 다시 센다

산이 푸르다 바위는 요술쟁이 산새 노래 손짓한다

야호 가을엔 풍악-산 야호 겨울엔 개-골-산

골짜기 마다마다 탄성 터진다 야, 금강산이다.

선생님의 향기 (작사 이순덕 작곡 김남삼)

1절 :

선생님 옆에 있으면 엄마 같은 생각이 든다

선생님 웃으시면 나는 마음 가득 꽃피어난다

때론 내가 눈물 짓도록 타이름을 안겨 주시고

때론 내가 웃음 짓도록 칭찬 하나 안겨 주시니

선생님 옆에 있으면 엄마 같은 향기가 난다

선생님 부르시는 노래 나는 팔랑팔랑 나비가 된다

2절 :

선생님 옆에 있으면 엄마 같은 생각이 든다

선생님 웃으시면 나는 마음 가득 꽃피어난다

때론 내가 눈물 짓도록 타이름을 안겨 주시고

때론 내가 웃음 짓도록 칭찬 하나 안겨 주시니

선생님 옆에 있으면 엄마 같은 향기가 난다

선생님 부르시는 노래 나는 팔랑팔랑 나비가 된다

늘 처음 마음으로 <김하나 작사 김남삼 작곡 >

<1절> : 늘처음 마음으로 친구야 도란도란 지내고 싶다

너와 내가 손잡고 걸었던 꽃길 다시 걷-고 싶다

어찌하여 우리 즐겁던 그-날들 어디로 가고

멀어진 마음 강물이 되어 우리 미소 사라졌-지

마음의 문을 열고 친구-야 미소 한 장 날려보낸다

너하고 마주보며 지내고 싶다 늘 처음 마음으-로

<2절> : 늘처음 마음으로 친구야 오순도순 지내고 싶다

처음 너와 내가-미소로 교정에서 만난 것처럼

하늘 맑은 가을 어느날 빨간 단풍잎을 모-아

책갈피 속에 가지런-히 정성으로 넣어주던 너-

마음의 문을 열고 친구-야 미소 한 장 날려보낸다

너하고 마주보며 지내고 싶다 늘 처음 마음으-로

비 오는 날의 우정 (심나은 작사 김남삼 작곡)

<1절>

노란 우산속으로 뛰어 들어온 한 아-이-

같이 쓰자하고 우린 빗속을 토박토박 걸었다

걸어가는 동안 난 한쪽 어깨가 그 아이도 한쪽 어깨 젖었다

우리의 어깨가 비에 젖은 만큼 우-정도 조금씩 싹텄다

우산 끝에 매달린 빗방울 함박웃음지으며 춤-춘-다

비오는 날 싹튼 우리 우정 보았는지 춤을 춘다.

<2절>

노란 우산속으로 뛰어 들어온 한 아-이-

같이 쓰자하고 우린 빗속을 토박토박 걸었다

걸어가는 동안 난 한쪽 어깨가 그 아이도 한쪽 어깨 젖었다

우리의 어깨가 비에 젖은 만큼 우-정도 조금씩 싹텄다

빗방울도 즐거워 (우산)위에 톡톡톡톡 토도독 노래부른다

비오는 날 싹튼 우리 우정 축하인지 손뼉친다.

우리들 마음에 봄을 깔아 주세요 (김하나 작사, 김남삼)

<1절>

봄을 주세요 봄을 깔아 주세요 우리들 마음-에

방긋방긋방긋 꽃들의 미소 상큼해서 좋아요

꽃이 피면 나비 춤추고 우리 마음 뛰어 놀아요

재잘재잘 새들의 노래 우리 노래 합창이 되요

맘을 열고 내달리고 싶어지는 푸른 잔디 새봄을

새싹들이 손짓하는 봄- 예쁜 봄을 깔아 주세요

<2절>

봄을 주세요 봄을 깔아 주세요 우리들 마음-에

방긋방긋방긋 꽃들의 미소 상큼해서 좋아요

꽃이 피면 나비 춤추고 우리 마음 뛰어 놀아요

재잘재잘 새들의 노래 우리 노래 합창이 되요

맘을 열고 내달리고 싶어지는 푸른 잔디 새봄을

새싹들이 손짓하는 봄- 예쁜 봄을 깔아 주세요

내 눈은 사진기(파랑새동요 제21집)

1.찰칵 찰칵 내 두눈은 멋진 사진기

마음속에 담고 싶은 풍경들을 볼때면

찰칵 찰칵 스마일 사진을 찍어요

자 - 자 - 여길 봐 행복한 미소야

내 마음 속 앨범에 가득할 기쁨들

반짝 반짝 내 두눈이 사진을 찍어요

2.찰칵 찰칵 내 두눈은 멋진 사진기

행 - 복한 순간들을 모두모두 모아서

찰칵 찰칵 스마일 사진을 찍어요

자 - 자 - 여길 봐 따스한 친구야

내 마음 속 앨범에 넘쳐날 웃음들

반짝 반짝 내 두눈이 사진을 찍어요

1.싱그러운 바람처럼 향기로운 꽃처럼

넌 참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친구야

네 맘 하나 가득 솔바람을 싣고

내 곁에 다가와 향기로 피어나네

언제나 어디서나 네가 있어 참 기쁘지

언제나 어디서나 네가 있어 행복하지

넌 참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친구야

2. 언제나 어여쁜 미소 영롱한 너의 노래

넌 참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친구야

고운 네 얼굴에 예쁜 미소 지으며

내 곁에 다가와 새처럼 노래하네

언제나 어디서나 네가 있어 참 기쁘지

언제나 어디서나 네가 있어 행복하지

넌 참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친구야 사랑스러운 친구야

1.사랑으로 둘둘 둘러진 울타리 안에

닮은 얼굴 닮은 마음 모여 살아요

우리는 보기만 해도 좋아요 좋아요

어려워 할 때는 서로 꼭 안아주지요

항상 아끼고 보듬어주는 사랑의 우리 집은

편안한 사랑 따뜻한 사랑 사랑 울타리

하하하하 호호호호 하하하하 호호

2.행복으로 둘둘 둘러진 울타리 안에

닮은 생각 닮은 꿈이 모여 살아요

우리는 보기만 해도 알아요 알아요

아픈지 기쁜지 금방 척 알아내지요

아픔 나누고 함께 해주는 사랑의 우리집은

포근한 사랑 행복한 사랑 사랑 울타리

포근해요 행복해요 사랑 울타리

봄바람 가마탄 나비 아가씨

살구나무 꽃마을로 시집 오시네

아지랑이 가마탄 꿀벌 도령님

살구나무 꽃마을로 장가 가시네

봄날 하루 벌 도령님 시장 하실라

나비 아씨 단꿀 모아 저녁상 보시네

노을이 감빛으로 물드는 호수를 정답게 노래하며 걷던 친구야

우리들이 걷던 그 길에 달님이 솟아 오르고 네 그리운 얼굴처럼

피어웃던 들국화 친구야 보고싶다 호수에 별이 잠기고

내 마음의 새 한마리 달님에게 날아 간다

둥근달이 둥실둥실 노젓는 호수를 눈빛으로 속삭이며 걷던 친구야

너와 내가 걷던 그길에 별님이 돋아나고 네 정겨운 얼굴처럼 웃음짓던 들국화

친구야 보고싶다 호수에 물새가 울고 너를 찾아 새 한마리 달님에게 날아간다.

노란 감꽃이 하나 둘 떨어지던 날 감목걸이 내 목에 걸어 주던 친구

뻐꾹 뻐꾹 감빛으로 물들던 내 얼굴 친구야 보고싶다 깜꽃이 떨어진다

감목걸이 살며시 걸어 주던 날 콩닥거리는 마음도 남기고 간 친구

뻐꾹 뻐꾹 노을처럼 물드는 내마음 친구야 보고싶다 감꽃이 기다린다.

밤하늘 별빛 반짝일때면 문득 생각이 나요

내가 힘이들때 손잡아 주시던 따스한 그 손길이

아무말 하지는 않아도 눈빛 속에서 느껴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자꾸자꾸 생각나 울것 같아요

밤 하늘을 보던 나의 눈 속에 별 빛이 흔들려요

이젠 나도 알죠 아빠 마음을 아빠 사랑해요

땅꼬마야 땅꼬마야 귀여운 땅꼬마야

뒤뚱대뚱 뒤뚱대뚱 조심해라 넘어질라

꽃을 보며 꽃을 따라 나빌보면 나삘 쫒아

돌부리 차고 넘어져도 얼릉금방 일어나네

땅꼬마야 땅꼬마야 요리조리 그 뒤를 따라

아장아장 온 마당을 휘휘젖고 잘도 논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생명들이 향기롭게 사는 모습을

마음의 귀 기울이면 들을수 있어요

바람소리 물소리 풀벌레들 노래 소리에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

꽃 한송이 나무 한 그루

작은 새 한마리 사랑하며 살아가지요

꽃 한송이 작은 새 한마리

사랑하며 살아가지요 자연과 함께

[간주]

꽃 한송이 나무 한 그루

작은 새 한마리 사랑하며 살아가지요

꽃 한송이 작은새 한 마리

사랑하며 살아가지요 자연과 함께

1.

(메)한가위 달이 뜨네 (받)에야데야

(메)농악대가 돌아간다 (받)에야데야

(메)우리 모두 손을 잡고 (받)에야데야

(메)한마당놀이 벌여보자 (받)에야데야

(메)전라도의 강강술래 (받)전라도의 강강술래

(메)경상도의 다리밟기 (받)경상도의 다리밟기

(메)충청도의 거북놀이 (받)충청도의 거북놀이

(메)경기도 황해도 소먹이 놀이 얼싸좋다 (받)에야데야

(메)덩실덩실 (받)에야데야

(메)어깨춤이 절로 난다 풍년이 따로 있나 에야데야 (받)에야데야

(메)에야데야 (받)에야데야

(메)한마음 잔치가 풍년이지 (받)에야데야

(메)한마음 잔치가 풍년이지 (받)에야데야

2.

(메)풍년의 달이 뜨네 (받)에야데야

(메)풍년잔치 한판 벌이세 (받)에야데야

(메)우리 모두 어깨짜고 (받)에야데야

(메)한마당놀이 벌여보자 (받)에야데야

(메)함경도의 사자놀이 (받)함경도의 사자놀이

(메)제주도의 줄다리기 (받)제주도의 줄다리기

(메)충청도의 거북놀이 (받)충청도의 거북놀이

(메)경기도 황해도 소먹이 놀이 얼싸좋다 (받)에야데야

(메)덩실덩실 (받)에야데야

(메)어깨춤이 절로 난다 풍년이 따로 있나 에야데야 (받)에야데야

(메)에야데야 (받)에야데야

(메)한마음 잔치가 풍년이지 (받)에야데야

(메)한마음 잔치가 풍년이지 (받)에야데야

해야해야 나오너라 우리 동무 해동무

열무김치 밥말아 먹고 우주자전거 달리자

달아달아 나오너라 우리 동무 달동무

된장찌개 밥말아 먹고 우주자전거 달리자

오두막에서 별나라까지

앞바퀴는 해님 뒷바퀴는 달님

1.뾰족배꼽 다 보이는 아기열매 가을둥이 똑또르르 도토리야 작은 얼짱 도토리야

겁도 없이 뛰어내려 코-잠든 도토리야 톡또르르 소리내고 어쩌자고 잠들었니

귀 밝은 다람쥐 다람쥐가 소리듣고 쪼르르 달려 와

맛있겠다 ----요리조리 굴려보며 신날거야 큰 일났다.

2. 꼭지모자 납작눌려 오동통한 가을둥이 떽떼구르 도토리야 작은 몸짱 도토리야

꾀 많은 척 갈잎밑에 반만 숨은 도토리야 떽떼구르 숲깨우고 어쩌자고 눈길 끄니

눈 밝은 다람쥐 다람쥐가 배꼽보고 쪼르르 달려 와

맛있겠다 두루두루 친구들을 모을거야 큰 탈났다.

1. 밤사이 달구름 살포시 내려 풀잎마다 총총 저걸 보세요

달님이 머물러 동그랗지요 달님의 미소도 담겨있어요

우리들 노래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꿈들이 담겨 있어요

2. 밤사이 별구름 살포시 내려 꽃잎마다 송송 저걸 보세요

별님이 머물러 반짝 거려요 별님의 미소도 담겨 있어요

우리들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도 저렇게 빛나고 싶어요

1.열려라 참깨야 열려라 참깨야 닫힌 마음을 열어주렴

열려라 고소한 참깨야 뚝딱 열어주렴 돌돌돌 볶으면 풍기는 맛 고소한 참깨야

다툰 후 닫힌 사람들 마음 뚝딱 열어주렴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밝은 세상 활짝 열어주렴

2.열려라 참깨야 열려라 참깨야 닫힌 마음을 풀어주렴

열려라 맛좋은 참깨야 뚝딱 풀어주렴 톡톡톡 튀어야 제 맛나는 고소한 참깨야

다툰 후 답답한 사람들 마음 뚝딱 풀어주렴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좋은 세상 활짝 열어주렴

1.출-렁 출-렁 물결타고 오징어배 나가신다 동해바다 오징어야 너울 너울 다 모여라

오는 길 어두울라 주렁 주렁 등 밝히고 그물 깊게 드리우니 밤바다가 대낮이구나

어서 어서 모이거라 어서 어서 모이거라 불빛보고 떼로 오너라

지화자 지화자 어부아저씨 어화 어화 웃어보자.

2.둥실 둥실 그물실은 오징어배 나가신다 크고 살찐 오징어야 너울너울 다 모여라

갑판위가 좁을세라 얼추 얼추 넓혀두고 그물마다 올라오니 밤 바다가 풍성하구나

덩실덩실 만선하자 덩실덩실 만선하자 덩실 덩실 만선하자

얼씨구절씨구 어부아저씨 어화 어화 웃어보자

1. 널뛰기 하자 널뛰기 하자 쿵더쿵 쿵더쿵 널뛰기 하자

마을 앞 너른 마당 모두 모여서 누가 높이 오르나 널뛰기 하자

산마루 구름까지 하늘 끝까지 높이 높이 더 높이 발을 맞추어

2. 널뛰기 하자 널뛰기 하자 쿵더쿵 쿵더쿵 널뛰기 하자

색동옷 알록달록 차려입고서 흥겨웁게 놀아보자 널뛰기 하자

새처럼 나비처럼 너울거리며 가슴을 활짝 펴고서 하늘 향하여

내 마음에는 내 마음에는 아름다운 빛이 살고 있다

나 어릴 적에 나 어릴 적에 처음 보았던 무지개

비바람 검은 구름 몰아내는 눈부신 해가

파란 언덕 위에 수 놓는 일곱 빛깔 무지개

내 마음 곱게 내 마음 곱게 물들이는 예쁜 무지개야

어른 되어도 언제나 그 곳에 살고 있어라

바람은 언제나 꿈길로 온다

맑은 물 위에 발자국을 찍으며

파란 풀잎을 살짝 살짝 밟고 온다

바람이 오는 길은 설레임이 있고

바람이 오는 길은 웃음이 있어

파란 그 길에 언제나 노래가 있다

1. 똑 똑 똑똑똑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지금 너의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니

아니 아니 아니 되어요 잠시 기다리세요

저의 마음자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어요

2. 똑 똑 똑똑똑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지금 너의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니

예 예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 오세요

저의 마음자리 비었으니 어서 들어오세요

깎아세운 산비탈에 꽃한송이 피었어요

누가누가 꺾을까봐 비탈길에 피었어요

바람이 꽃씨안고 여기 살짝 피었어요

누가누가 꺾을까봐 비탈길에 피었어요

비탈길 바위틈에 꽃한송이 피었어요

부끄러워 부끄러워 돌틈사이 피었어요

들새가 꽃씨안고 여기 살짝 뿌렸어요

부끄러워 부끄러워 돌틈사이 피었어요

별빛 총총 쏟아지는 고운 봄 밤에

은하수 한무리 쇠리없이 내려와

별빛 모으고 이슬 함께 모아서

배밭 가득 하얗게 별꽃을 피운다

그 별꽃 하나 둘 내 마음에 안기면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별꽃 피는 밤

사슴이 뛰고있다 어미사슴과 아기 사슴

나무 나무 사이 은빛 입으면서 뛰고 있다

은젓가락처럼 뚫고드는 빛을 온몸에 화살로 받으며

나무 나무 사이 그물친 아침 맑게 거두면서

어미사슴 눈매에서 빛이 멍울 지는 걸 곁눈질로 보는

아기사슴은 아침의 기쁨을 알것 같아 나무 나무 사이

가득히 연한 습기에 온몸 적시면서 큰 숨 들이쉬고

아침 눈빛 떠는 것을 이 아침 덜 깬 침대에서

감은 눈이 어리인 사슴 두 마리의 이야길 듣는다

논두렁 길 밭두렁 길

낮은 언덕 과수원 길

솔 숲 사이로 사라지는

꼬불꼬불 황토길

저 길 따라 어디론가

마냥 걷고 싶다

누구인가 나를 찾아

금방 올 것만 같다

아아 시골길 우리 고향 길

아아 솔바람 오는 길

1

숲과 숲 사이 논과 밭 사이

오솔길은 정답고 좋아요

반짝반짝 아침 이슬이

햇살 받고 웃는 것도 참 좋아요

좁아도 옹기종기 살아요

풀이랑 무당벌레 사이좋게

풀풀 풀냄새 풀풀 흙냄새

마음도 싱그러워요

나비가 되어 풀꽃 만나요

하하 호호 꽃처럼 웃어요

숲과 숲 사이 논과 밭 사이

오솔길을 걸어봐요 좋아요

2

집과 집 사이 산과 들 사이

오솔길은 정답고 좋아요

폴짝 폴짝 꼬마 새들이

노래하며 노는 것도 참 좋아요

흙 위에 오순도순 살아요

꽃이랑 벌과 나비 사이좋게

솔솔 솔향기 솔솔 땀향기

마음도 향기로워요

나비가 되어 풀꽃에 앉아요

하하 호호 마음을 열어요

집과 집 사이 산과 들 사이

오솔길을 걸어봐요 좋아요

뱅글뱅글 돌아간다.

바람개비 돌아간다.

꽃바람도 강바람도

새소리도 감겨 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곱게 어울려

우리들의 고운 꿈을 활짝 펼쳐라.

뱅글뱅글 춤을 춘다.

바람개비 춤을 춘다.

바람개비 날개에서

태어나는 푸른 세상

잠자리야 잠자리야

신비로운 날개 반짝이며

온 세상 두루두루 날아다니며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땅으로 내리꽂누나

피곤한 날개를 쉬고 싶을 땐 뱅글뱅글 돌다가

작은 풀 무성하고 갈대가 흔들리는 강가에 들러서

목축여 가렴

요기도 하렴

거기는 네가 태어나

자라난 고향이란다.

도토리 가족이 모자를 쓰고서 또르르 나들이 간다.

랄랄라 가을 하늘 너무 맑아 또르르 또르르

도시락도 들지 않고 나들이 간다.

가을 바람이 밀어 주면 또르르 언덕을 굴러 가고

가을 바람이 밀어 주면 또르르 톡 가랑잎에 떨어지고

다람쥐 쪼르르 달려 오며는 가랑잎에 쏙 숨어 있다가

랄랄라 가을 산이 너무 고와 또르르 또르르

또르르 또르르 또르르 단풍 구경간다.

1

새 짝꿍은 누가 될까 남자 일까 여자 일까

키 순서로 줄 세우며 다가 오는 선생님

가슴 콩콩 마음 동동 뒷 꿈치로 키 키우며

아까부터 마음에 든 친구 옆에 서 보건만

선생님이 정해주는 새 친구가 나의 짝꿍

어떡하면 잘 보일까 설레는 나의 마음

2

사이좋게 지내라는 선생님의 첫 말씀에

어떤말이 제일 좋을까 무얼 먼저 물어볼까

두근두근 뛰는 마음 꼭꼭 눌러 침 삼키고

잡았던 손 바라 보며 얌전하게 앉았는데

망설이는 나를 보고 웃어주는 나의 짝꿍

마음 어찌 알았을까 좋아지는 내 마음

파아란 오월

아카시아 피는 그 길을 달려 가면

나직한 목소리 속삭이는 바람

나비처럼 날아간 꽃잎은

구름되어 하늘에 흔들리고

멀리서도 알 수 있는

추억같은 진한 향기

아!

아카시아 피어 더욱 정다운

오월 어느 날

아!

아카시아 피어 더욱 정다운

그런 오월 어느 날

뻐꾸기 소리

뭉게구름처럼 하얗게 피어오르고

꽃향기 진한 오월 어느 날.

1.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흥부 놀부 살았대.

맘씨 고운 흥부는 제비 다리 고쳐 주고

박씨 하나 얻어서 울 밑에 심었더니

주렁주렁 열렸대 복바가지 열렸대.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하나 켜면 금 나오고 둘을 켜면 은 나오고.

2.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흥부 놀부 살았대.

심술 궂은 놀부는 제비 다리 다쳐 놓고

박씨 하나 얻어서 울 밑에 심었더니

주렁주렁 열렸대 헛바가지 열렸대.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셋을 켜도 금은 없고 넷을 켜도 은은 없고.

앞뜰에 피어있는 많은 꽃들이

저마다 예쁘다고 뽐내지마는

언제나 방긋 웃는 네 모습이

아빠의 마음에는 오직 한송이

너무나 사랑스런 꽃이랍니다.

세상에 제일 예쁜 꽃이랍니다.

너무나 사랑스런 꽃이랍니다.

세상에 제일 예쁜 꽃이랍니다.

우리 가족은 텃밭에서

상추와 아욱 씨를 뿌렸어요.

아빠는 괭이로 땅을 파고

엄마는 씨를 뿌리고

나는 흙을 덮었어요.

얼마 후면 우리 가족은

아침 식사 때는 아욱국을

저녁 식사 때는 상추쌈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욱국과 상추쌈을 먹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 가족은 땀을 흘렸어요.

굴렁쇠가 앞장서서 굴러갑니다. (굴렁쇠 굴렁쇠 우리 굴렁쇠)

아이가 굴리면서 따라갑니다. (굴렁쇠 굴렁쇠 우리 굴렁쇠)

동그라미 굴렁쇠는 굴러가는 보름달 (동그라미 굴렁쇠는 굴러가는 보름달)

동그라미 굴렁쇠는 우리들의 길잡이 (굴렁쇠 굴렁쇠 우리 굴렁쇠)

아이가 보름달을 몰고 갑니다. (굴렁쇠 굴렁쇠 우리 굴렁쇠)

동그라미 앞세우고 달려갑니다. (굴렁쇠 굴렁쇠 우리 굴렁쇠)

동그라미 굴렁쇠는 한달내내 보름달 (동그라미 굴렁쇠는 한달내내 보름달)

동그라미 굴렁쇠는 일년내내 보름달 (굴렁쇠 굴렁쇠 우리 굴렁쇠)

진주빛 하늘에 손가락으로

내일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구름 속을 헤치는 햇살 한 점이

터질 듯한 소망을 열어 줍니다.

사닥다리 위에서 빛나는 별은

밤늦도록 뒤척이는 어머니 모습

한 계단 한 아름 손을 올리면

따스한 눈물이 안아 줍니다.

어머니 이 다음에 무엇 될까요?

하늘 될까 강이 될까 들꽃이 될까

조금씩 깊게 깊게 사랑하면서

가슴으로 소망스레 꿈을 꿉니다

동무끼리 얼굴을 마주 보아라

동무끼리 얼굴을 마주 보아라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입을 꽉 물고

웃지 않기 내길하여도

코가 벌름벌름 귀가 쫑긋쫏긋

어느 새 동무끼리 입이 열린다.

하하하하 하얀이 이가 보인다.

생글생글 맑은 눈 눈이 웃는다.

동무끼리 얼굴을 마주 보아라

동무끼리 얼굴을 마주 보아라

온 세상 아이들아 저 높은 산에 올라 야호

온 세상 아이들아 저 높은 하늘 향해 외쳐 보자.

마음을 활짝 열고 커다란 꿈을 안고

힘차게 자라나는 우리는 내일의 새 주인

온 세상 아이들아 저 높은 산에 올라 야호

온 세상 아이들아 저 높은 하늘 향해 외쳐 보자.

우리들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들 마음이 어디들어 있을까

볼 수도 만질수도 없는 마음을

사람마다 간직하고 살아가지요

마음과 마음을 이을 수 있는

고리가 있다면 어떤 고릴까

마음을 잇는 고리, 사랑의 고리,

정이 서로 따뜻하게 통하는 고리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사랑의 고리로 잇고 산다면

세계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지

정다운 한 식구가 될 수 있겠지

니나니 나니나 니나니나

버들피리 소리가 들려온다

니나니 나니나 니나니나

버들피리 소리가 들려온다

니나니 나니나 니나니나

시내에 얼음이 다 풀렸다

니나니 나니나 니나니나

잔디가 파랗게 돋아난다

니나니 나니나 니나니나

산나물 캐러들 올라간다

니나니 나니나 니나니나

제비가 물 차고 날아든다

1.풀빛고운 오솔길 어디에 있을것 같아 초록산속나뭇잎사이 새소리로 숨어있을까

2.졸졸졸졸 시냇물 어디데 있을것 같아 맑은 강 갈대풀숲에 바람으로 숨어있을까

3.노을지는 바닷가 어디에 있을것 같아 까만밤하늘 별마을에 꿈빛으로 숨어있을까

후렴 노래야 노래야 나오너라 우리 함께 놀자

노래야 노래야 나오너라 우리 함께 놀자

낭창낭창 나뭇가지 끝에 앉아 있는 참새 한마리

뚱뚱보가 될까봐 남들이 놀릴까봐 걱정이 태산 같아요

먹는 것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몸이 불었지

혹시라도 저울이 고장 났을까봐

이가지 저가지 옮겨 다니며

자꾸자꾸 몸무게를 재본 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할머니의 안경은

할머니는 바늘귀에 실 꿰시려면

얘들아 얘들아 내 안경 다오

그 것 참 이상하다 할머니 안경

내가 쓰면 이렇게 어지러운데

내가 쓰면 이렇게 어지러운데

1. 씽씽씽싱 푸른 들판을 바람처럼 달려보자

랄랄랄랄 노래 부르며 새 처럼 날아보자

들꽃이 생글생글 반갑다고 인사하고

푸른산이 가슴 열고 우리들을 껴안는다

씽씽씽씽 푸른꿈이 씽씽씽씽 하늘 달리고

랄랄랄랄 푸른 노래가 파도로 물결 친다

2. 씽씽씽씽 푸른 숲길을 바람처럼 달려보자

랄랄랄랄 휘파람 불며 구름처럼 날아보자

시냇물이 종알종알 반갑다고 손을 잡고

푸른 하늘 가슴 열고 우리들을 껴안는다

씽씽씽씽 오색꿈이 씽씽씽씽 하늘 달리고

랄랄랄랄 오색 노래가 파도로 출렁댄다

나무는 나무는 바람 살랑이길 기다려

나뭇잎 새로 나뭇잎 새로 이야기 나눈다

나무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왜 없을까

나무라고 나누고 싶은 꿈이 왜 없을까

나무는 나무는 햇살 반짝이길 기다려

나뭇잎 새로 나뭇잎 새로 꿈이야기 나눈다

바람 곱고 맑은 날 나무들의 속삭임이 눈부시다

바람 곱고 맑은 날 나무들의 속삭임이 눈부시다

힘들고 외로울 때면 소리없이 마음 속에 다가와

생각나게 하는 그 이름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 어떤 이름 보다 가장 귀하고 따뜻합니다

이 세상 어떤 향기 보다 가장 아름답고 오래갑니다

마음 지쳐 약해 있을 때 남 모르게 마음 속에 찾아와

사랑의 향기 전하는 그 이름 아버지 어머니

1. 주말이면 재미 쏙쏙 농장으로 달려가요

이랑에다 꼭꼭 씨를 심고 랄라 고랑파서 물을 주고

한 주 지나 파릇파릇 새싹들이 귀엽게 돋았어요

흙 떠밀고 일어나서 오똑오똑 떡잎 달고 생글생글

상추 머리가 빠글빠글 쑥갓머리도 뽀글뽀글

재미 쏙쏙 주말농장 우리 식구 하하호호

2. 주말이면 재미 쏙쏙 농장으로 달려가요

엄마 따라 콕콕 김을 매고 랄라 아빠 따라 거름 주고

한 주 지나 무럭무럭 채소들이 예쁘게 자라지요

두 손 가득 상추 뜯어 차곡차곡 쑥갓 베어 듬뿍 듬뚝

푸짐한 채소 꼬글꼬글 쌈밥 소리가 쩝쩝짭짭

입맛 쏙쏙 주말밥상 우리 식구 하하호호

파도가 잔잔한 수평선 저 너머로

무슨 생각하는지 누굴 기다리는지

비바람 불어도 변함없이 갈매기 친구를 하며

조용히 바다를 지키는 섬이 하나 있어요

나는 커다란 나뭇잎배로 그 곳에 가고 싶어요

나는 언제나 아름다운 섬 그 곳에 가고 싶어요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참 잘했지

1. 울밑에 꽃씨 몇알 심어 놓고서 까맣게 나는 잊고 지내왔는데

어느새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 채송화 봉숭아꽃 활짝 피었네

그 때 꽃씨 뿌리길 참 잘했지 그 때 꽃씨 뿌리길 참 잘 했지

2. 날마다 겨우겨우 메꾸는 일기 에이참 귀찮은걸 뭣하러 쓴담

쓰면서 투덜대던 꾸부랑 글씨 먼 훗날 읽어보니 웃음 터지네

그 때 일기 써놓길 참 잘했지 그 때 일기 써 놓길 참 잘했지

느낄 수 있어요

1. 하늘이 그 얼마나 높고 높은지 나는 몰라도

바다가 그 얼마나 깊고 깊은지 나는 몰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내 마음에 고이는 어머니의 향기

내마음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

보이지는 않아도 나는 언제나 느낄 수 있어요

만질 수는 없어도 어디서나 느낄 수 있어요

2. 숲속에서 우는 새 무슨 새인지 나는 몰라도

들판에서 웃는 꽃 무슨 꽃인지 나는 몰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내 마음에 들리는 어머니의 소리

내 마음 도닥이며 향기를 심는 어머니의 사랑의 웃음

보이지는 않아도 나는 언제나 느낄 수 있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어디서나 느낄 수 있어요

새 우는 소리

1. 쪼롱쪼롱 쪼-롱 쪼롱쪼롱 쫑쪼-롱 쪼롱쪼롱 쪼-롱 쫑쫑 쪼로롱 쫑쫑쫑

저높은 하늘에서 숨가쁘게 지저기는 소리 종다리 소리

냉이 캐는 순이 바구니 속으로 어느새 살며시 들어와

쪼롱쪼롱 쪼로롱 쪼롱쪼롱 쪼로롱 파르파르 파르르 떨어요

2. 삐롱삐롱 삐-롱 삐롱삐롱 삥 삐-롱 삐리삐리 삐-리 삥삥 삐-리 삥삥삥

뒷동산 숲속에서 목이 쉬도록 부르는 소리 방울새 소리

그리움 찬 언니 마음 속으로 어느새 살며시 들어와

삐롱삐롱 삐-롱 삐롱삐롱 삐-롱 파르파르 파르르 떨어요

자 장 가

1. 아가야 착한 아기 잠 잘 자거라 초저녁 달을 보고 멍멍 짖다가

시샘해 바둑이도 잠이 들었다 아가야 착한 아기 잠 잘 자거라

아가야 착한 아기 잠 잘 가거라 아무리 불러봐도 소리가 안나

성이나 나팔꽃도 잠이 들었다 아가야 착한 아기 잠 잘 자거라

2. 아가야 착한 아기 잠 잘 자거라 모여서 소곤소곤 채송화들도

입들을 꼭 다물고 잠이 들었다 아가야 착한 아기 잠 잘 자거라

아가야 착한 아기 잠 잘 자거라 집없는 잠자리도 풀잎에 앉아

눈물이 글썽글썽 잠이 들었다 아가야 착한 아기 잠잘 자거라

엄마 아빠 어린 시절

1. 엄마는 어릴적 우리처럼 노래를 좋아하셨대

얼굴보면 알지요 눈빛 보면 다 알지요

두 손을 꼭 잡고 즐겁게 노래 부르던 모습

우리들 가슴에 그려져요 단발 머리 엄마의 노래

아 아아 달님처럼 아름답던 엄마의 어린시절

아 아아 노래속에 떠오르는 엄마의 어린시절

2. 아빠는 어릴적 우리처럼 그림을 좋아하셨대

얼굴보면 알지요 눈빛보면 다 알지요

하이얀 도화지 신나게 그림 그리던 모습

우리들 가슴에 그려져요 더벅 머리 아빠의 그림

아 아아 별님처럼 반짝이던 아빠의 어린시절

아 아아 그림속에 떠오르는 아빠의 어린시절

옹 달 샘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산길에

동그마니 앉아있는 옹달샘 하나

향긋한 풀내음이 너무 좋아서

지나가는 흰구름도 불러모으고

어디선가 날아온 단풍잎에도

그리운 사연 적어 띄워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산길에

동그마니 앉아 있는 옹달샘 하나

뱃 노 래

어기여차 어기여차 훈풍이 불어온다

어기여차 어기여차 하늘 높이 돛을 올려라

우리들의 푸른 꿈을 하늘 높이 활짝 펼치러

출렁이는 파도 헤치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자

배띄워라 배띄워라 (어기여차 어기여차)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어기여차 어기여차)

두 팔에 힘을 주어 (어기여차 어기여차)

배저어라 배저어라 (어기여차 어기여차)

우리들의 높은 뜻 어디에다 펼치리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저 푸른 바다로 힘차게 나아가자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파 꽃

붓글씨 쓰고 싶어 붓처럼 생긴 파꽃

바람이 불때마다 소곤소곤 글씨 쓰네

파꽃들이 붓을 놀려 하늘에 대고 글씨쓰네

글씨를 쓸 때마다 번지는 꽃향기

우리집 뜨락에도 꽃향기 하나가득

하얀 달무리

저녁 동쪽 하늘에 달이 솟으면

손을 잡고 모여드는 하얀 달무리

고향이 그리워도 달님을 보고

친구가 보고파도 달님을 보고

온세상 눈길들이 하늘에 올라

온세상 그리움이 하늘에 올라

동그란 가슴들을 서로 맞대고

춤을 추며 모여드는 하얀 달무리

솔 바 람

솔바람 소리는 바다소리

머언 잔잔한 푸른바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초록빛 바다소리

지절거리던 한마리 산새도 날아가고

하늘까지 닿을 듯한 삑빽한 솔숲 사이

이끼 푸른 바위 위에 앉아 있으면

멀리 귀기울여 앉아 있으면

머언 어디메쯤 햇살의 나라

바다로만 둘려 있는 섬기슭에

소년들이 들고 부는 은피리 소리

산의 동무 들으라고 산으로 향해 부는

바다에서 오는 소리 은피리 소리

바다에서 오는 소리 금피리 소리

첫 눈

1. 창밖에 나풀나풀 첫눈이 내리면

활짝웃던 친구 얼굴 보고 싶어요

하늘 가득 피어나는 눈부신 하얀꽃은

다정한 친구되어 내게로 와요.

2.뜰앞에 소복소복 함박눈이 내리면

보고싶은 친구 얼굴 그려보아요

한잎두잎 눈꽃이 그림을 덮어도

나는 다시 그 모습을 그린답니다.

봄을 그리는 색연필

1. 파란 남청 색연필로 파란하늘 그리고 하얀 초록 색연필로 정성들여 칠하면

토끼구름 솜구름 산위에 피어나고 졸졸졸 흘러가는 골짜기 맑은 냇물

보리밭 푸른물결 출렁이는 도화지에 종달새 날아와 즐겁게 노래하네

2. 초록 연두 색연필로 나뭇가지 그리고 노랑 분홍 색연필로 정성들여 칠하면

높은산 넓은들에 새싹들이 돋아나고 하르르 피어나는 살구꽃 진달래꽃

꽃다지 민들레꽃 수를 놓은 도화지에 노랑나비 날아와 즐겁게 춤을 추네